

2025-R-01 | 2025. 7. 30 |

장일순, 미래에서 오신 손님

임채도

모심과살김연구소

2025-R-01 무위당·인농 연구 보고서

장일순, 미래에서 오신 손님

발행일 _ 2025년 7월 30일

발행인 _ 신명호

저 자 _ 임채도

기 획 _ 모심과살림연구소

발행처 _ 모심과살림연구소

(05550)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6층

전화 02-6931-3604

누리집 www.mosim.or.kr

전자우편 mosim@hansalim.or.kr

<비매품>

목 차

일러두기

들어가면서 - 왜 장일순인가?	1
------------------------	---

1. 원주사람 장일순	7
2. 대학 입학과 한국 전쟁	15
3. 원주에서 펼친 교육사업과 정치운동	20
4. 지학순 주교와의 만남	31
5. 재해대책위원회와 협동운동	39
6. 민주화운동과 '원주그룹'	47
7. 민주화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	60
8. 한살림	67
9. 한살림농산과 박재일	74
10.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82
11. 나락 한 알 땅에 묻다	88

나오면서 - 미래에서 오신 손님	97
-------------------------	----

일러두기

1. 장일순에 관한 일체의 존칭과 호칭을 생략하고 본문에는 ‘장일순’이라는 이름만 명기했습니다.
2. 쉽게 읽히도록 인용 각주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며, 각 장별로 적어둔 참고문헌을 활용해 궁금한 부분을 더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들어가면서 - 왜 장일순인가?

오늘 우리는 왜 장일순(1928~1994)을 돌아보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한 생의 대부분을 원주라는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던 시골 촌로(村老)에 불과할지도 모를 사람한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장일순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호를 여러 가지 썼듯이 장일순도 청년기에 청강(淸江), 장년기에 무위당(無爲堂), 그 후 일숙자(一粟子, 조 한 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생애는 푸른 강물처럼 거침없이 치달던 때도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 자신은 조 한 알에 불과하다며 삶과 세계를 통찰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에게 장일순은 생명사상가, 교육자, 지역사회운동가, 서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 지학순 주교님과 함께 1960~1980년대 원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회운동가, 교육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 가운데는 민주화운동의 원로로, ‘원주그룹’이라는 재야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최근 동학을 연구하는 지식인들은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을 다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생명사상과 한살림운동을 정초하고 발전시킨 사상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듯이, 원주 지역발전에 헌신한 분들도 많고 세상에 알려진 민주화운동가도 많고, 생명사상에 관해 정연한 논리와 철학을 주창한 학자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장일순을 다시 거론하고 자꾸 소환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가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과 도시의 서

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중산층도 등락하는 과일, 채소 가격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몰고 온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를 말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세계 인류를 위협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7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비롯된 인수전염병이라고 추정합니다. 구체적인 발병 경로가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천5백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지구 대멸종처럼,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파괴가 기후재앙을 일으켜 지구 생명들이 또 한 번의 대멸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바 있는 대기화학자 폴 크루첸(Paul Cruzen)과 해양과학자 유진 스토머(Eugene F. Stoemer)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시대를 지질학적으로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류세라는 명칭은 46억 년이라는 지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의 행위 작용이 지구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결과는 폭우, 폭염, 홍수, 산불, 팬데믹, 식량위기 등 매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은 빠르게 높아지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지대가 녹으면서 이산화탄소보다 2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지닌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류뿐만 아니라 민물 연체동물의 1/3, 상어와 가오리의 1/3, 포유류의 1/4, 파충류의 1/5, 조류의 1/6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불과 2,3백 년 만에 인간은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그동안 인류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발전’이나 ‘진보’와 같은 가치, 개념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9~20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했던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일군 진보와 발전의 결과가 결국 이런 모습이라면 말입니다. 백악기의 대멸종으로 공룡 등 생물계의 70%가 사라진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지구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겠지만, 우주 별 가운데 가장 생명이 번성한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하나의 운명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회를 보는 지금까지의 관점이 흔들리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했던 삶의 가치나 목적은 회의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섯 번째 대멸종을 인간이 저지른 죄과로 순순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 자연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고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만약 이도저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적어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이 위기가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물질계의 혼란(混亂)보다 정신의 혼란(昏亂)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Rachel L. Carson)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한편, 시대가 이처럼 어려우니 사람들의 인정(人情)도 각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 길에는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만 늘어갑니다. 젊은이들은 살아갈 걱정 때문에 사랑할 결심,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환난을 극복했던 우리 민중들의 뒷심은 사라지고 되바라진 냉소와 이기심, 경쟁심과 한탕주의가 서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감칠 맛 나는 미사여구로 민중들을 호도하는 사기꾼, 위선자들, 신비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를 깔보기 좋아합니다. 힘없는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척하다 조금만 힘들고 자기 이익이 주어진다면 세 치 혀로 자신의 배신을 스스로 용서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시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는 세상을 보는 주인된 세계관, 내 삶의 방식부터 바꾸어 나가는 주체적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해 장일순은 새롭고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일순의 삶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갈 답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민청학련 사건이라는 대규모 시국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사형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생때같은 자식과 동료로 잃은 이들에게 억울하고 피맺힌 원한이 왜 없었겠습니까. 장일순은 권력의 핍박을 받고 당시 원주로 자신을 찾아온 김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그냥 봉사하다 간다고 생각해.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밑으로 기어야 해.”

삶과 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고민할 때 우리는 자칫 아집과 논쟁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제각기 서있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목표와 방향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목표와 방향을 따져 제 입장을 관철하려는 열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주변을 챙기고 돌보는 한 사람이 결국 삶과 운동을 아름답게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입니다. 장일순은 해답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조용히 일깨웠습니다. 스스로 각성하지 않고, 남의 말과 해답을 쫓다보면 결국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장일순은 위인이나 초월자가 아닙니다. 장일순은 누군가 자신을 칭송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스스로 ‘조 한 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였습니다. 장일순의 글씨와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지만 정작 자신은 길거리 군고구마 장수가 리어카에 써 붙인 ‘군고구마’라는 글씨보다 못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장수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걸고 절박하게 적어 내려간 글씨야말로 삶이 묻어나는 진짜 글씨라면서, 그에 비하면 자신의 서화는 그저 먹장난, 붓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일순의 난초와 글씨가 순박한 농사꾼의 얼굴,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을 닮아간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자기 수행이 도달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일순은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거나, 우산을 내어주지는 않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정다운 길동무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가장 닮은 말은 희망이라

고 합니다. 그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해답은 결국 나 자신 속에 있음을,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만나는 즐거움이 곧 생명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열쇠임을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희망을 찾는 여행을 함께 해 볼까요?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김홍중(2019), 「인류세가 제기하는 사회이론의 몇 가지 쟁점들」,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년 전기
학술대회 발표문
- 엘리자베스 콜버트(2022), 김보영 역, 『여섯 번째 대멸종』, 쌤앤파커스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 황경훈(2014), 「나락 한 알 속에도 우주가, 무위당 장일순(3) - ‘밑으로 기어라’ 그 철저한 모심
의 영성」,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2014년 12월호.

1. 원주사람 장일순

장일순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10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40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13대조 할아버지가 원주에서 전사하면서 장일순의 선조는 원주에 뿌리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일순은 아버지 장복흥(張福興) 선생, 어머니 김복희(金福姬) 여사의 슬하 6남매 중 차남으로 났습니다. 훗날 만형이었던 장철순이 15세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장일순은 집안의 맏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장경호 선생은 포목상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 경제적인 형편은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일제하에서 조선인이 큰돈을 벌기도 어려웠겠지만 부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텐데 장일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원주에서 인심을 얻으며 화목한 집안을 일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적 보수주의의 면모가 강한 분이였지만 1941년 원주농업고등학교가 설립될 때 토지를 기부하고,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등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현실적 문제의식도 겸비한 분이었습니다. 집 사랑채에는 늘 묵객들이 드나들었고 집 안사람들은 동냥하는 거지들조차 손님으로 맞아 공손히 대접했습니다. 장일순의 아버지 역시 소작인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소작료를 채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시기에는 소작인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피난하기를 자청해 공산 치하에서도 장일순의 가족은 모두 무사히 화를 면했습니다. 장일순은 봉산동 집 자신의 서재에 해월 최시형 선생과 함께 할아버지의 사진을 정히 걸어 놓고, 외부 강연할 때도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를 가끔 얘기했는데 그만큼 할아버지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조부님은 구한말에 도 감영, 지금의 도청에 들어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때가 17살 때인데 국권이 흔들리고 가렴주구가 심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닐 때죠. 그러다 거길 나왔대요. 그리고는 당나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원주서부터 서울을 올라 다니면서 장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증조부 때부터 가난해졌대요. 살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면서 밥도 제대로 못 사 자시고 떡을 사서 자셨대요. 그

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도 좀 마련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육이 필요 하다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하면 돈도 기부하고, 땅도 기부하고 학교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팔알 하나 쌀알 하나가 마당에 떨어져 있어도 그걸 전부 이 남박에다 주워서 담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농부가 애써서 만든 것인데 그냥 버리면 되느냐구요. 그리고 종이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고는 귀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하시는 행동이 일관 돼요.

거지가 와서 ‘한 술 주세요’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은 좀 하셨지만, 사랑에 계시면서 안채에다 대고 크게 호령을 하세요. ‘야, 어멈아 손님 오셨다’ 그러면 상 받쳐다 마루에다 대령해야 되죠. 또 겨울에는 방에 들어가 자시라고 국밥을 말아줬어요. 그리고 농사철에 타작이 끝나고 소작인들이 오셔서 보라고 하거든요. 공평히 나눌 테니까 와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조부님은 가볼 게 뭐 있느냐고 안 가세요.

누구 돈을 꺾지도 가 달라 소리를 안 하세요. 내가 아홉 살 땐데, ‘돈 3백 원을 아무개가 꺾어서 안 가져 오시니 제가 가서 얘기를 할까요?’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여쭙었어요. 그러니까 내 조부님 말씀이 ‘너도 자식을 키우잖니. 돈은 졌으면 그만이지 달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값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값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래면 돈은 받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잃고, 또 값을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리는 사람한테 가서 달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 그런 슬기롭지 못한 짓은 하지 마라.’라고 당신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구요.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마당에서 들었어요. 그러던 분이세요.

또 시골 마당에 울 안이 넓으니까 과일나무가 많았는데 내가 학교에서 와서 과일을 따먹으면 내 이름을 부르시고는, ‘그건 니 아범이 심은 나무 아니냐. 네께 아니잖아. 그게 다 익으면 그때 따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일하는 분까지 고루 먹으면 좋지. 아직 덜 익은 걸 그렇게 따먹으면 되겠니?’라고 하셨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 하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주신 유

언이예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모범인 거라.”

뿐만 아니라 훗날 장일순이 한학과 고전, 시서화(詩書畵)에 깊은 조예를 보여준 것도 유년 시절 집안의 가풍과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일순은 초등학교(옛 원주보통학교) 입학 전부터 한문과 서예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 선생의 가르침이 매우 컸었습니다.

박기정 선생(1874~1949)은 자(字)는 일원(一元)이고, 호는 차강(此江), 강제(江齊), 강옹(江翁)이며, 본관은 밀양으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박기정 선생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성실해 하루에 오백 자씩 붓글씨 연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의 문인으로부터 글씨를 배워 18세에 전국 한시 백일장 휘호 경시대회에서 장원을 해 이름을 알렸고, 글씨뿐만 아니라 사군자, 노송도, 포도도, 괴석도 등 그림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군자 가운데 난(蘭) 그림은 당대에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1940년 강원도가 발간한 『강원도지』, 필원강릉조(筆苑江陵條)에는 박기정을 ‘선서화인칭명가(善書畵人稱名家)’ 즉, ‘서화를 잘하여 세상 사람들이 명가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선생은 빼어난 글씨와 그림 솜씨보다는 ‘추수정신(秋水情神)’, 즉 차갑고 맑은 물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붓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선생은 ‘심정즉필정(心正則筆正)’, 먼저 마음을 곧고 바르게 해야 붓을 바르게 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선생의 깨끗하고 올곧은 심성은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그대로 배어있었습니다. 1895년 일본제국주의 세력이 동학혁명세력을 무참히 학살한 후 민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내리는 등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자 의병장 유인석은 강원도 원주, 영월, 평창, 정선, 제천, 충주 일대에서 항일의병(을미의병)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21세였던 박기정 선생은 의병에 가담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해방 후에도 박기정 선생은 김구, 이승만, 여운형 등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팔아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박기정 선생은 장일순의 할아버지 여운(旅雲) 장경호(張慶浩) 선생과 서화로 인연을 맺어 원주 장경호 선생의 집에 며칠씩 유숙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때

어린 장일순에게 서예와 서화의 기초와 예법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 장일순의 호였던 청강(淸江) 역시 스승 차강(此江) 박기정 선생이 자신의 예술정신과 사상세계를 장일순이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장일순의 삶에서 원주라는 지역을 빼놓고는 얘기를 이어가기 힘들습니다. 장일순은 호암(湖巖), 일초(一草), 청강(淸江), 무위당(無爲堂), 일속자(一粟子, 조한알) 등 여러 가지 호를 썼는데, 자신의 여러 서화 작품에 ‘원주 장일순’, ‘치악산사람(母月山人) 장일순’, ‘원주인(原州人)’이라고 기재할 만큼 원주에 대한 애향심이 깊었습니다.

원주(原州)라는 지명은 『고려사』제2권 고려 태조 23년(940년)간에 처음 언급됩니다.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원주를 통치할 때는 평원군(平原郡), 신라 경덕왕이 원주를 통치할 때는 북원경(北原京)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명에는 공통적으로 “원(原)”이라는 한자가 들어있는데 이 글자는 들, 들판이라는 뜻이 있으니 평원, 북원경, 원주라는 말에는 지리적으로 너른 평야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지도책을 펼쳐 보면 원주는 오대산에서 시작한 차령산맥이 서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치악산을 넘어 남한강 상류와 만나 형성된 너른 들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남쪽으로 충북 충주시, 동쪽으로 강원도 영월과 평창군, 북쪽으로 강원도 횡성군과 경계가 닿아 있습니다.

18세기 조선 영조시대 인문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는 강원도 땅을 “화전을 많이 경작하고 논은 매우 적다. 기후가 차고 땅이 메마르며 백성은 어리석다. 두메 마을이라 시내와 산이 기이한 경치가 있어, 한때 난리를 피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여러 대를 살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언급하는데, 그러면서 춘천과 원주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택리지는 “원주는 영월 서쪽에 있다. 감사가 있는 곳으로 서쪽으로 한양과는 250리 거리이다. 동쪽은 대관령과 두메에 가깝고 서쪽은 지평현(砥平縣)과 경계가 닿아있다. 산골짜기 사이사이에 들판이 섞여 펼쳐져, 밟고 수려하여 몹시 험하거나 막히지 않았다. 경기도와 영남 사이에 끼여서 동해로 수운하는 생선, 소금, 인삼과 관곽(棺槨)과 궁전에 소용되는 재목 따위가 모여들어 하나의 도회가 되었다. 두메와 가까워 난리가 나면 숨어 피하기

가 쉽고, 서울과 가까워 세상이 평안하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까닭에 한양 사대부들이 이곳에서 살기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래 전부터 원주는 산이 깊고 나무가 우거진 강원도에서 몇 안 되는 평야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서울로 통하는 물자가 모여드는 요충지역이며, 서울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난리 때는 피하기 좋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서울로 진출해 큰 뜻을 펼치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는 또 치악산(雉岳山)을 빼고 말할 수 없겠지요. 1천 미터가 넘는 여러 봉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울창한 삼림과 계곡을 만들고 구룡사, 상원사 등 오래된 고찰과 해미산성과 같은 유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악산은 ‘은혜 깊은 땡’이라는 전설로 유명합니다.

은혜 깊은 땡 이야기

옛날 이 산을 넘던 선비가 나무 위 구렁이가 땡 등지를 노리는 것을 보고 활로 구렁이를 쏘아 잡았습니다. 선비는 땡 등지가 무사한 것을 보고 다시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밤길을 헤매던 중 선비는 인적 없는 숲속에서 작은 집을 발견하고 젊은 여자 집주인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하루를 묵게 된 선비는 잠결에 커다란 구렁이가 자신을 칭칭 감고 ‘내 남편을 활로 쏘 죽였으니 이제 너를 죽여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꿈쩍없이 죽게 된 선비가 살기를 간청하자 구렁이는 아침이 밝기 전에 저 넘어 절에 있는 큰 종을 세 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먼동이 트려고 하고 이젠 죽었다고 생각할 때, 선비는 멀리서 땡,땡,땡 세 번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구렁이는 스르륵 도망을 가고 선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놀란 선비가 종소리가 난 절에 가보니, 큰 종 아래 머리가 깨어진 땡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전날 선비가 활을 쏘 구해 준 등지 속 땡의 어미가 간밤에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른 선비의 목숨을 살리고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교항리, 신림면 성남리 등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은혜 깊은 땡’ 이야기뿐만 아니라 호랑이, 구렁이, 부엉새, 이무기 등 동물과 관련된 전설이 많고 특히 도깨비 전설이 거의 모든 마을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깊어 그런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장일순도 겨울밤이면 마당 한편에 있는 어두컴컴한 변소에 가기 무서웠다고 합니다.

장일순은 치악산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호 가운데 ‘모월산인(母月山人)’과 같이 치악산과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 치악산은 원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赤岳山)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땡에 얽힌 전설에 따라 치악산(雉岳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장일순은 치악산을 ‘모월산(母月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달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예쁜 자식, 미운 자식을 가리지 않고 한 품에 안 듯이, 달빛이 어둠을 내치지 않듯이, 치악산은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너그럽게 다 품어 안았습니다.

한편, 원주는 치악산에 가로막혀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일순은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 이런 속설이 도무지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보기 좋게 깨버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그런 속설이 있었던 이유는 한반도의 허리 중앙에 위치해 반도의 위, 아래 정치세력들이 세력권을 넓히고자 할 때 반드시 점령해야 할 군사적 요충지였던 점이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원주를 지배했고, 한국전쟁기에도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군사적 전략적 거점의 의미 외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원주는 해방 직후까지 작은 읍에 불과했었고 한국전쟁 후에 군부대가 진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 1955년 원주시로 승격되었고 지금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훌륭한 애국자와 인재를 많이 배출한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장일순은 1940년 원주보통학교(1938년 원주봉산심상소학교로 개칭. 현 원주 봉산동 소재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봄 원주 원동성당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장일순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만형이었던 장철순이 열다섯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을 천주교 묘지에 묻어달라고 유

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맏손자 장철순에 대한 기대가 컸던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죽은 손자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집안사람 모두를 천주교에 입교 시켰습니다. 장일순은 그 후 일생 동안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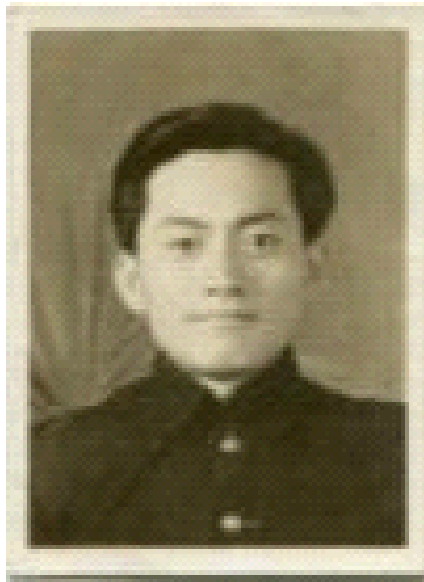
보통학교를 졸업한 장일순은 고향을 떠나 서울 배재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장일순의 명민함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맏손자 장철순에 대한 조부 장경호 선생의 큰 기대가 둘째인 장일순으로 향하게 된 점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장일순이 서울 유학시절 머물며 공부했던 명륜동 집은 조부께서 일찍 세상을 뜬 맏손자를 위해 손수 지었던 집이었습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원주시 편(2002), 『원주지(原州誌)』 건/곤/감/리, 원주사료총서 제1,2,3,4권, 원주시.
- 원주시 편(2011), 『원주의 옛이야기와 노래』 상/하, 원주사료총서 제7,8권, 원주시.
- 유성선(2022), 「차강 박기정의 예술정신과 철학실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74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01~118.
- 이중환(2002), 『택리지』, 을유문화사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2. 대학 입학과 한국 전쟁

장일순은 배재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44년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 화공과에 입학했습니다. 일제가 패망에 가까워지면서 징용, 징병이 극심해지던 시절이라 공과대학을 전공하여 징병을 피할 요량이었습니다. 이듬해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대학시절 무위당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38선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청이 1946년 8월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경성의전, 경성법전, 경성공업전문학교 등 주요 전문학교를 통폐합해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치하는 법령(국립대학교설치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칭 ‘국대안(國大安)’이 발표되자 해당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은 경찰의 학원 간섭 중지, 친일 교수 배격,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대체하고 운영권을 이양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1년여에 걸친 학생들의 국대안 반대 투쟁으로 한국인 총장이 임명되고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나 이 과정에

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해직되거나 제적되었습니다. 당시 장일순도 국대안 반대 투쟁에 참여했고 제적되었으나 미군정의 제적학생에 대한 복교조치로 1947년 8월 다시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서 장일순은 일제 징병을 피하기 위해 입학했던 공과대학 전공을 포기하고, 신설된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1회 입학생으로 재입학했습니다.

원주청년 장일순은 국대안 반대투쟁에 참여하고 치열한 해방공간의 정치적 상황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사회와 나라의 운명을 깊이 사색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그의 운명도 역사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여간 벌어진 이 전쟁으로 나라와 민족은 갈가리 찢겨 나갔습니다. 남북한을 합쳐 52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초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도 평생 전장에서 살아온 자신조차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전쟁이 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장일순도 집안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흥업면 만덕골에 피해 있던 가족들이 다시 원주 소초면 갯바위골로 떠났고 장일순은 다음 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장일순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갯바위골로 홀로 가게 되었는데, 중간에 검문소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일순은 머리를 박박 깎은 상태였는데 군인들이 인민군으로 의심해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 총살을 명령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200만 명이 넘었으니 장일순 역시 같은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가톨릭의 성호를 긋는 모습을 보고 총살을 지휘하던 국군 장교가 즉결 처분을 중단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공산주의자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 폭격 등으로 죽어간 양민들이 너무도 흔했고, 길가에 시체가 널려 있는 참혹한 피난길에서 22살의 장일순 역시 죽음의 경계까지 갔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4후퇴 때 장일순은 군속으로 징집되어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통역병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기간 동안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들을 미군이 심사할 때 입회하여 통역을 했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인민군과 중공군 전쟁포로 약 17만 명을 수용했는데 당시 UN군이 운영했던 가장 규모가 큰 포로수용소였습니다. 이 포로수용소에서는 전향공작과 이념대립으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 간의 유혈 폭력사태가 빈번했습니다.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는 포로수용소 운영을 지휘하는 미군과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조건 북으로 송환을 주장하는 친공 인민군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남한을 남기로 한 반공 포로들 사이에 치열한 이념전쟁이 벌어졌고 고문과 학살, 암살, 폭동, 납치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장일순은 자신의 거제포로수용소 경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을 지켜보면서 그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유혈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곳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겨눈 총부리를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는 것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아마도 장일순이 거제 포로수용소에서의 군 생활을 끝내고 원주로 돌아온 직후 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1952년 1월 8일 장일순은 상대성이론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그 후로도 한 차례 더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국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련하여 ‘하나의 세계’ 운동 본부 측에 한국의 정세를 알리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 미국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에 가담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 참상을 목도하고 난 후 큰 죄책감을 느끼고 세계 평화운동 - 하나의 세계운동(One World Movement, 세계연방운동)¹⁾ -을 전개합니다. 장일순은 해방 직후부터 아인슈타인의 평화운동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한국지부 상임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훗날 장일순은 아인슈타인의 ‘하나의 세계’운동에 참여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1) ‘하나의 세계’ 운동은 핵물리학자 A. 아인슈타인이 주창해 1947년 스위스에서 14개국 대표들이 모여 시작된 ‘세계연방정부’ 추진운동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파멸적 결과에 대한 반성과 핵 없는 세상, 세계평화를 위한 초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운동이었다.

“나는 해방 직후에 ‘원월드운동’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인슈타인이나 세계 과학자들이 먼저 시작했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뒤로 아인슈타인이 반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못 할 짓을 했다구요. 그러면서 세계는 하나의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남북이 분단이 되었는데 보니까 미국도 소련을 감당 못하고, 소련도 미국을 감당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짝 막 히더라구요. 어느 한쪽이 힘이 우세했다면 일방적인 통일이 이루어졌겠죠. 그게 안 되니까 통일을 못했어요. 그 때 이 바닥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양군이 점령해 있었다고 해도 우리 나름의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었겠죠.”

장일순은 1952년 포로수용소에서 군 생활이 끝난 후 서울대 미학과 복학을 단념하고(3년 수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때 장일순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일순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믿었던 미학, 철학의 사변적 진리보다 조국이 처한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라면 배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장일순은 고향 원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헌

- 김기섭(2021),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최성현(2004), 『좁쌀 한 알』, 도솔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3. 원주에서 펼친 교육사업과 정치운동



1954년 성육학교 교사시절

장일순이 고향에 돌아왔을 당시 원주는 전쟁의 참화로 강원 감영, 일제 때 지어진 조선식산은행(현 제일은행), 학성동 철교 등을 제외하고 제대로 성한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온 원주 시민,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뒤섞여 원주천변과 남산 주변에 판자와 움막집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원주 시내 평원동에 있었던 장일순의 집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일순의 가족들은 봉산동에 땅을 구해 직접 돌과 흙을 날라 집을 짓고 할아버지와 대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장일순은 거리에 넘쳐나는 피난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복학하는 것보다는 고향 원주에서 가난하고 희망을 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면 전쟁의 참화로 배움의 길을 잃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일순은 결심을 굳히고 우선 무보수로 원주 성육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맡아오던 분이 공립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갑작스럽게 장일순이 학교 운영과 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중농(中農)의 지주 집안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장일순이 학교 재건 과정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되자 조금씩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일순의 부모님은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큰아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일순은 성육고등공민학교가 비인가 학교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 유지들을 설득해 정식 학교법인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주 명륜동 향교 뒤편 야산을 깎아 교사(校舍)를 새로 마련하고 새 학교 이름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대성학원’이라고 짓고, 교훈을 ‘참되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대성중고등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3학급으로 15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당당히 학교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대성학교를 졸업한 이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언론인, 군 장성뿐만 아니라 훗날 원주 지역사회를 빛낸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당시 대성중고등학교의 교가는 장일순이 직접 지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장일순이 바라는 교육과 인재의 상(象)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뜻 높고 사랑 많은 대성의 교시는
천하를 포용하며 비리를 광정하는 의리의 근원이다
힘차라 대성의 명량한 건아야
희망이여 크거라 세계를 위하여

2절

예부터 내려오는 대성의 학사는
유구한 문화배경 안에서 향기롭다

이곳이 우리들의 전당이다 모여라 대성의 학당에
이상을 닦아라 인류를 위하여

‘천하를 포용하며 비리를 광정하는 의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로움이 배움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희망과 이상을 키워나간다는 교육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일순에게 교육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본질은 인간다운 삶을 함께 배우고 느끼는,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식의 상호공유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전쟁의 예를 들자면 장수 혼자 잘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잘 싸워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라. 그 공을 장수 한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 교육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난 몇 사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존중받고 주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인격을 키우는 교육, 서로 협동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1950년대 경 대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름나고 출세하기 위해 남을 딛고 1등을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뼈뿔어진 교육관은 학생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와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은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가정, 직장, 동아리 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학교가 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이가 있으면 배우는 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거나 적게 알고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조금 더 알고 있을 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두세 가지만 질문하면 무지(無知)하다고 자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오고가는 ‘상호 작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전쟁 후 장일순이 고향에 돌아와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세상은 혼란으로 치달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북진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개헌(1954)과 독재 강권 통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30세 장일순은 고향 원주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멈춰 세워야 나라의 미래가 바로 서고, 그러해야만 민족의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소위 ‘국립대학안’ 반대 투쟁에 참여하면서 장일순은 여운형, 조봉암, 윤길중 등 당시 진보계열의 인사들과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58년 1월, 제4대 민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이승만 정권은 유력한 야당 후보이자, 자신의 정치적 경쟁 상대인 조봉암(초대 농림부장관)과 그가 주도하는 진보당 지도부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조봉암은 1952년과 1956년에 있었던 제2,3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으며 이승만에게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떠올랐습니다. 이승만은 이들이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큰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 정권을 곤궁에 빠뜨렸던 것은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당시 ‘북진통일’만을 고집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금지했던 이승만으로서는 정권의 핵심 기반과 이념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결국 조봉암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뒤집어쓰고 19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²⁾

2) 이후 2007년 국가 과거사 진상규명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소위 ‘진보당 사건’에 대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15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장일순은 조봉암의 사형 소식에 흐느껴 울었습니다.³⁾ 하지만 이에 굴복해 뜻을 굽히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야당 세력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장일순은 리어카에 마이크를 달고 거리 유세에 나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폭압적인 부정선거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총선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고 이승만 정권은 서서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민의원) 선거가 끝나고 2년 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이어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조봉암이 주도했던 구 진보당 계열과 민주혁신당 등 혁신세력, 일부 자유주의 보수파들은 사회대중당을 창당했습니다. 장일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원주에서 사회대중당의 후보로 다시 출마했습니다. 장일순의 목표는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4.19혁명으로 다시 찾아온 통일의 희망을 살리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⁴⁾

그러나 그의 두 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4.19혁명 이후 대중들의 높은 민주개혁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혁신 정치세력들의 분열과 봉당으로 민주세력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일순은 낙선 후에도 통일사회당 준비위원회 참여, ‘2대 악법(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및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강원도 대변인과 ‘민족자립운동발기준비회’ 대표 역을 맡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정치 참여에 대해 후일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재심 법정을 열어 조봉암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조봉암을 사형 집행한 지 52년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지만 억울한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3) 훗날(1993년)까지도 장일순은 죽산 조봉암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고 조봉암을 떠올릴 때마다 피를 토하듯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4) 1960년 7월 4대 총선 때 장일순의 선거 유인물에 적혀있는 출마의 변이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이래서는 안 되고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권에 발언도 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건전한 의미로 보면, 그것은 사회정의운동이지 정치운동이 아니지요.”

그러나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19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채 싹을 틔우기도 전에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쿠데타 세력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주장해온 지식인, 정치인, 학생, 교사, 한국전쟁 기간 피학살자 유족 등 민주인사들과 다수 국민들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위헌적 소급 법률을 만들어 대거 구속, 처벌했습니다. 장일순도 쿠데타 발생 이틀 만에 ‘혁명검찰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겪고 2년여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5.16쿠데타를 이룬 후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박정희는 약속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윤보선 후보에 15만여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겨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해 정치 참여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장일순도 감옥에서 박정희가 보낸 고위 인사로부터 군부정권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장일순은 박정희의 ‘민정 이양’ 거부와 군인정치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어, 일어에 능통한 장일순은 감옥에서도 당시 국내외 언론과 외국 서적을 읽으며 정세의 흐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소위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던 군부 통치의 문제점과 민중들의 저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일순은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1963년 12월 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적 정화운동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활동’ 운운하면서 감옥에 있던 양심수들을 부분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심을 폭압으로만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일순은 2년여 만에 춘천 감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일순의 어머니는 옥중에 있는 아들을 기다리다 미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장일순은 어

머님 묘소에 가서 불효의 깊은 한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학교는 장일순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경찰은 ‘보안관찰’ 대상자인 장일순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나 생계활동은 물론 여행, 주거이전까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친지, 동료 선후배들도 혹시라도 장일순을 아는 척했다가 피해를 볼까 두려워 감히 말을 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히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봄, 다시 시국은 한일 국교수립 문제로 들끓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들어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 대가로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관계 정상화, 국교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민지배의 가해국과 피해국이 갑자기 화해하고 대등한 공식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 굴욕적인 한일회담 진행을 추진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민,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일제 잔재와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다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학생들의 민족의식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1965년 4월 2일 원주 대성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은 ‘참되자’라는 학교 교훈을 내세우고 고교생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 시가지로 쏟아져 나와 ‘굴욕외교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의 시위는 침착하면서도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성고 학생들을 비롯 원주지역 고교생들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으로 연좌시위를 끝낸 후 당당히 귀교했습니다.

이날 대성고 시위사건으로 7명의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이사장인 장일순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조종하지 않았는지 집요하게 물었지만 학생들은 의연히 자신들의 주장과 계획으로 진행된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번

기회에 ‘불순분자’ 장일순을 학교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집요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봉산동 장일순의 집 앞 골목 어귀에 파출소를 새로 만들어 놓고 집을 다녀가는 사람들을 샅샅이 감시했습니다. 시위 학생들의 배후에 장일순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국의 압력으로부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장일순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내놓고 학교 운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어렵게 마련한 대성학교를 살리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일순의 결단과 노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행히 6개월 후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장일순은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 통치에 비판적이었고 무엇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부화뇌동하는 좌우 정치세력들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승만의 외세 의존과 독재 통치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남의 이승만, 북의 김일성 집권세력보다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노선을 천명한 몽양 여운형의 정치 노선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⁵⁾

여운형, 조봉암은 해방 공간에서 좌우합작과 민족통합을 통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간의 대립, 미소 공동위원회의 파행, 남과 북의 단독정부 수립 등 한반도의 운명이 국제적 냉전 질서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좌우 협상과 협력으로 민족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신뢰와 협조를 얻었을 때 비로소 통일독립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현실주의적 정세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좌우합작 노선은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이 극우파 청년들에 의해 암살(1947)되고, 조봉암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법 살인(1959)을 당하고 말았던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훗날 김지하는 청년 장일순의 정치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5) 여기에는 여운형과 교류하고 있었던 스승, 차강 박기정 선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강 선생은 이십대 청년 때부터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제자요, 추종자였고, 6.25 이후에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동조자였으며 4.19 전후에는 윤길중 씨와 같은 혁신계 동지였다. 선생의 사상은 단적으로 말해 좌우의 통합이었고 영성과 과학의 통전이었으며 동서양과 남북의 통일이었다.”

앞서, 장일순이 해방 이후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구금될 때까지 민주사회주의 등 혁신계열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혁신계 정치지도자들의 연령이 대부분 50대 이상인 반면 장일순은 30대 초반의 나이였다는 점, 또 당시 혁신계 내부의 심각한 내분과 노선 갈등에서 장일순은 비껴있었다는 점, ‘원일드운동’이나 가톨릭, 동학, 유교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장일순이라는 인물은 기존의 ‘혁신계’라는 정치적 분류법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일순의 사상적 기반을 검토하면서 성(誠), 경(敬),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학적 윤리관과 동학의 개혁적 세계관, 민주사회주의의 혁신 정치사상, 무위(無爲)의 도교적 자연관과 인생관이 혼용된, 그러면서도 이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내면적 사고와 외적 실행에서 조화롭게 일치되는 매우 독특한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여운형, 조봉암이 살았던 해방 직후의 혼란상과 사상 이념을 내세운 냉전적 대립주의, 남북간 비방과 모략,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묻지마’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내 생각과 다르면 모두 ‘공산주의자’이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일순의 정치사상은 앞으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큼니다.

두 번의 선거 출마로 장일순의 짧은 현실 정치참여는 끝났지만 그의 중용, 중도주의, 비폭력, 화해와 통합의 정신은 이후 더 넓은 차원에서 심화되어갔습니다. 2년여 감옥생활과 연이어 교육 현장에서 타의로 멀어지게 된 후 장일순은 더 이상 시대와의 불화(不和)에 연연하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짓고 먹과 붓을 동무 삼아 깊은 사상적 은거(隱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인류와 세계의 변혁을 위해 불꽃처럼 터트렸던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내면에 갈무리하고 평화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36세였습니다.

참고문헌

- 강창선(2015), 「한국의 생명운동과 대안 정치운동 - 무위당 장일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남태(2013), 「4.19혁명기 사회대중당의 성립과 노선」, 수원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김소남(2013), 「1960~19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지하(2003), 『김지하 회고록 - 흰 그늘의 길2』, 학교재.
- 무위당사람들 엮음(2022), 『대장부,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 윤정원(2023), 「사회대중당의 계파갈등과 정치적 연합전선의 실패」, 『역사와 세계』 제63집, 2023.6, p.201~238.
- 윤형근(2004), 「언제나 생명 가진 모든 존재와 함께 - 박재일 선생님이 들려주는 무위당 이야기」,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 이영화(2006),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과 활동」,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최성현(2004), 『좁쌀 한 알』, 도솔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 홍석률(1993), 「4월민주항쟁기 중립화통일론」, 『역사와 현실』제10권, 한국역사연구회

4. 지학순 주교와의 만남

장일순은 12세에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 원동성당에서 세례명 요한으로 영세를 받고 평생 천주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1965년 원주가톨릭교회에서는 가톨릭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가 분리, 신설되면서 초대 원주교구장으로 지학순 주교(1921~1993)가 임명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학순 다니엘 초대 원주교구 주교는 1921년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 청학동에서 태어나 1924년 중화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울 동성상업학교(소신학교, 현 동성고등학교), 원산 덕원신학교를 거쳐 서울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52년 부산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된 후에는 거제 포로수용소, 청주 복문로교회에서 봉직했고, 1956년 로마 울바노 대학에 유학하여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가톨릭대학 교수를 거쳐 1962년 부산 초장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는데 이 시기는 가톨릭 교회사에서 큰 획을 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1959년 교황 요한 23세는 변화된 세계 안에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교리를 전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와 사회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고 교회가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적극적인 실천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가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 보수적 모습에서 깨어나 사회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연대를 표현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목(司牧, pastoral)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⁶⁾

제2차 공의회는 4년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문 등 총 16개의 문헌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사목헌장』은 교회의 사목적 책무를 선언한 것으로, 가장 길고,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문헌이기도 합니다. 제2차 공의회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함세웅 신부는 사목헌장을 ‘제2차 바티칸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목이라 함은 “교리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교회의 태도”(『사목헌장』)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공의회의 핵심이며 꽃'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2차 공의회에 직접 참석한 한국 교회의 교부는 노기남, 나길모, 서정길, 윤공희 신부 등 12명이었는데 지학순 주교도 1965년 9월 공의회 4회기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로마 유학 중에 이 심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했으며 귀국한 후 1963년 부산 초장동성당 주임 신부로 봉직하면서 제2차 공의회의 진행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65년 교황은 춘천교구에서 원주시, 원성군, 영월군, 삼척군, 정선군, 울진군을 분리해 한국의 14번째 신생 교구로 원주교구를 설정하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주교구장으로 44세의 부산 초장동 지학순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그해 6월 29일 원주 원동성당에 착좌한 지학순 주교는 사목지침을 “빛이 되어라(Fiat Lux)”로 정하고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라.”고 첫 강론을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원주에 오자마자 자신의 뜻을 함께 펼칠 사람들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장일순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지학순 주교는 첫눈에 장일순의 사람됨과 깊이를 알아보고 원주교구의 크고 작은 일과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제2차 공의회가 폐회된 후, 공의회의 귀중한 문헌들을 장일순, 김영주 등과 나누면서 공의회 정신의 중대한 의미를 확산하고 평신도운동을 추진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장일순을 원주교구 사도회장에 임명하고 공의회 문헌을 번역하여 평신도들에게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장일순과 그의 동생 장화순 등은 교구 소속 성당을 순회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등 공의회의 주요 문헌들에 관해 해설했습니다. 특히 장화순은 진광고등학교 교장이자 장일순의 둘째 동생으로 원동성당 자치위원회와 사목위원회 회장을 맡아 형님 장일순의 일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항상 웃는 표정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형님 장일순의 눈과 발이 되어 헌신한 동지였습니다.

1967년경 장일순은 지학순 주교로부터 가톨릭 꾸르실료(Cursillio)운동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꾸르실료는 스페인어로 단기과정(a short course)이라는 뜻으로 가톨릭교회에서 진행하는 보통 3박4일 간의 평신도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가톨

릭 지도자 양성과 신앙생활의 쇄신을 목적으로 한 교육운동을 말합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일치 사상을 강조하며 교회 공동체의 확립에 역점을 두는 운동으로 1940년대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신도 운동을 활성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필리핀으로부터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되어 알려졌는데 장일순은 한국의 초창기 꾸르실료 운동 교육과 조직화에 참여해 원주교구의 평신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장일순이 직접 원주교구 초대 꾸르실료 회장을 맡았고, 그의 아내인 이인숙도 꾸르실료 여성회장을 맡았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수도자, 수녀회 등 성직자들의 회의, 연수에서도 제2차 공의회의 내용을 전파하고 알리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구와 본당 사목위원회에서부터 마을 공소에 이르기까지 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1박2일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본당마다 청년회, 부녀회,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가톨릭농민회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장일순은 꾸르실료 교육과정에서 바티칸 공의회의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강의하면서 “교회는 사회의 어머니이고 교사이다. 아프면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불쌍한 어린이들 차별하지 않고 다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성학교 제자들과 젊은 청년들이 꾸르실료 교육에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원주교구 재해대책사업위원회와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협동조합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교회 내의 평신도 운동과 함께 가톨릭 원주교구의 공의회운동과 교회 밖의 고통 받는 민중들을 연결하는 데는 신용협동조합운동(이하 신협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1962년 로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부산 초당동성당 주임신부로 봉직하면서 신협운동을 통해 고리대의 폐습을 일소하고 민중들의 삶의 형편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협운동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부산 메리놀병원과 주한외국원조단체협의회(KAVA)를 중심으로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던 메리 가브리엘라(Sister Mary Gabriella Mulherin) 수녀는 1960년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인 부산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한 분입니다. 지학순 주교는 원주교구에 부임한 후, 장일순과 함께 1966년 원동성당신협에 이어 황지신협(1966.11.창립), 문막신협

(1966.12.창립), 단구동신협(1968.2.창립), 삼척신협(1969.10.창립)을 연이어 설립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원동성당에 오자마자 성당의 붉은 담부터 허물었습니다. 또 틈나는 대로 교구 내 농촌 현장과 탄광촌 등을 방문해 신자들과 어려운 서민들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탄광촌을 찾아서 광부들의 사택 단지를 돌아볼 때마다 공동 수도, 공동 화장실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특히, 검은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천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학순 주교는 낙후한 원주교구와 지역사회에 학교, 병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잘 갖추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씩 마련해 나갔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원주 단구동 종축장 근처 육민관중학교를 인수하여 새로 진광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대성학교 교감으로 있었던 장일순의 둘째 동생 장화순을 초대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후에 진광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사람들 가운데는 박재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재학 중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 있던 중 친구였던 김지하를 통해 장일순을 만나고 진광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진광중학교는 부설기관으로 ‘협동교육연구소’를 설치했는데 장일순은 원주에서 연극 연출을 하던 셋째 동생 장상순을 서울 ‘협동교육원’에 파견해 협동조합 이론과 회계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협동교육연구소 간사를 맡게 했습니다. 그 후 ‘협동교육연구소’는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운동가, 지역사회운동가들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협동교육연구소를 통해 교구와 강원도 전역에 협동운동을 확산하려는 뚜렷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1년 8월 장일순은 협동교육연구소를 통해 성장한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원주가톨릭센터 1층에서 조합원 33명, 자본금 1만 원으로 원주밖 음신협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장일순은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과 협동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늘 강조했습니다.

당시 지학순 주교의 사목정신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유명한 ‘뽕땅’ 사건입니다. 1970년 봄, 지학순 주교는 안젤라라는 세례명의 나이 어린 시내버스 여성 안내원이 어머니 약값과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버스 승객들이 내는 요금에서

300원 정도를 매일 몰래 가져갔고 그로 인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19세인 여차장입니다. 저는 18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굳세게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저는 일하는 날 얻어지는 300원씩의 부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세계에서는 ‘뽕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매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 ‘뽕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 저는 영원히 교회와 등져야 합니까? 저는 정말 죄인입니까?”

당시 어린 여성 버스 안내원들은 고작 1만 8백 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그마저 식대와 각종 잡부금을 제외하면 겨우 6천 원 정도를 손에 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이 6만 320원이었으므로 월급 6개월 치를 한 폰도 쓰지 않고 모아야 쌀 한 가마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내원이 돈을 가져가는 ‘뽕땅’이 빈번했고 버스 회사는 이를 감시한다고 어린 여성 안내원들의 알몸을 수색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실제 1966년 18세 여성 버스 안내원이 뽕땅 혐의로 심한 욕설과 매를 맞고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1970년 4월 28일 서울 YMCA강당에서 노동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뽕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뽕땅은 죄악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루에 3, 4백 원의 뽕땅을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기업주들의 운영 불합리에서 나오는 책임을 여차장들이 질 수는 없다.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하는 교환의 정의에서 볼 때도, 모든 사람의 공공복리를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법적 정의에서도, 누구나 살 권리가 있는 사회정의에서도 뽕땅은 죄악이 아니다.”

지학순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의 정신, 즉 소유권이 아니라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돈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생활의 주체이며 중

심이고 목적’(제63항)이라는 지향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 원주 MBC의 설립과 1971년 부정부패 규탄대회 등도 모두 그러한 노력의 연장이었습니다. 1972년 8월 19일 폭우로 인해 남한강 일대에서 대홍수 사태가 일어나 십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지학순 주교는 세계 여러 가톨릭 구호단체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고 해외에서 들어온 구호자금을 신자, 비신자 구분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이 모두는 교회가 사회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빈곤과 부정을 타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빛이 되라는 공의회 정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학순 주교가 발표한 ‘1973년 세부 사목지침: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의 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전개와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절대적으로 초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구별의 원칙’과, 사업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말없이 도와 주며 배움으로써 다음 활동의 주체로서의 자기 발전을 준비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 즉 ‘관련의 원칙’을 잘 인식하고 결합시킴으로써 테제를 실천하는 것이 원칙적 태도이다. (중략) 사제들은 본당과 공소를 모든 교우, 모든 민중의 협동 생활의 기지로, 공동체화의 터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자유롭게 개방하여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각종 공동생활과 공동 모임일 조직하고 지도하되 그것을 빈번히 함으로써 교우들, 민중들 상호 간의 거리를 좁히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원주교구의 제2차 공의회 운동이 아무런 마찰 없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다. 당장 원주교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생 교구로 설정된 다음 해 원주교구의 총경비가 당시 돈으로 2천6백30만 원이었는데 이 중 신자들이 부담한 액수가 6만 3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재정은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가난하고 교구 행정은 외부 의존적인 태도가 강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를 지지하고 따르는 신부들도 있었지만 외국인 신부들이나 일부 방인사제(한국인 신부)들은 주교가 사제의 권위를 낮추고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신부가 뒤돌아서서 미사를 드리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관행

들을 신자 중심의 교회 질서로 바꾸는 데는 말하지 못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오른쪽)과 지학순 주교(왼쪽)

교회와 사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원주 지역사회개발, 농촌과 탄광지역의 신용협동조합운동, 1972년 남한 대홍수 사태 후 복구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한층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1952년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군종신부로 있을 때, 비슷한 시기 장일순 역시 포로수용소 통역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서로의 친밀감은 더했을 것입니다. 사목의 든든한 지팡이를 얻은 지학순 주교, 가난한 민중들의 공생운동에 날개를 얻은 장일순은 나이 차를 넘어 평생 서로 의지하고 같은 곳을 지향하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무위당사람들 엮음(2022), 『대장부,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 신정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사목 방향과 지학순 주교의 사목: “사목 헌장”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04(2019), 2~35,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 장동훈, 「한국 천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용 과정 안에서의 지학순 주교」, 『신학전망』 206(2019), 46~96,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 최현순,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사목 헌장』 4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른 지학순 주교의 교회관 이해」, 『신학전망』 206(2019), 2~45,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 황경서, 안치용, 노수빈, 박서윤, “알몸수색에 매질... 18살 희진의 직장에서 벌어진 일”, 2021.1.10.자 오마이뉴스 기사.

5. 재해대책위원회와 협동운동

당시 강원도는 가난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태백, 정선 등 탄광산업이 발달한 일부 지역도 대부분의 광부들이 노동착취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농민들과 광부들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인 사채와 높은 이자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5,6월 보릿고개가 되면 장리쌀을 빌려다 먹고 가을에 5할의 이자를 붙여 지주에게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매년 이자 갚다가 허리가 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부들 역시 고립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도시 물가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에 생필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66년경부터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원주에 부임하기 전에 봉직했던 부산은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의 발상지로서 1960년 메리 가브리엘 수녀가 처음으로 ‘성가신협’을 창립했던 곳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신협을 통해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일순은 1966년 11월 원주신용협동조합(원주신협)을 창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원주신협 초기에 출자금 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면서 장일순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찍이 실감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당시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잘 알고 경험도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즈음 진광중학교 교사로 있던 박재일은 장일순과 협의 후 교직을 그만두고 협동조합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상순 등 ‘협동교육연구소’가 점차 협동조합의 실무자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주, 이경국 등 원주의 협동운동가들이 현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원주신협 이후 황지신협, 문막신협, 단구동신협, 삼척신협, 영산광격신협 등이 잇달아 만들어졌고 1971년에는 원주 밝음신협이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는 바야흐로 한국 신협운동의 중심지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제천과 단양 등 강원, 충청지역 13개 시군에서 1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불가항력의 재난 앞에서 주민들은 뉘를 놓고 정부와 행정당국도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찢찢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수해가 발생하자 직접 국제 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서독을 방문해 가톨릭계의 지원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1972년 12월 말 독일 가톨릭 주교단은 자선 기구를 통해 291만 마르크(약 3억 6천만 원)라는 거금을 원주교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1973년 1월, 가톨릭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대표자들을 망라해 '재해대책사업위원회'(약칭 재해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은 김영주가 맡았습니다. 농촌사업은 박재일, 김상범, 정인재, 이우근, 홍고광, 김인성이 담당했고, 어촌 사업은 강태용, 한우지원사업은 장상순, 광산사업은 이경국, 교육사업은 김현일 등이 분담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학순 주교가 직접 맡아 사업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은 긴급 구호, 전담 복구, 마을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일시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가난한 민중들에게 지속적인 소득과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은 피해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여 돈이나 소를 지원한 뒤 2년 뒤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린 송아지를 받아 키우게 한 뒤 그 소가 자라 새끼를 낳으면 소는 키운 사람이 갖고 새끼 송아지로 대출금을 갚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위원회는 상환받은 송아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똑같은 방식으로 갚게 했습니다. 또 자금은 절대로 개인에게 지원하지 않았고 꼭 협동조직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립과 협동력을 길러 나갔습니다.

장일순은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낙후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원주 진광학교 부설 협동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마을지도자와 주민 교육, 협동조합 조직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한편으로 재해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역에 상담 실무자를 파견했는데, 상담 실무자들은 수재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복구 대책과 마을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에서 지도하고 호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상담가, 활동가였던 셈입니다. 장일순은 상담원들에게 수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하늘처럼 모실 것을 강조하면서 ‘농자성군(農者聖君)’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그는 상담원들이 권위적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농민들을 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상담하는 동료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 농촌협의회, 광산협의회 등 다양한 주민 협동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몇 해 동안 농촌과 탄광지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이 74개에 달했습니다.

가톨릭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 활동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979년 9월 11일 재해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체 사업의 성과를 총괄하고 7년간의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해 11월 재해대책위원회는 교구 신부들이 주도하는 사회개발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장일순과 이경국, 김상범, 김헌일 등 당시 운동의 핵심들은 일선에서 물러났고 교구의 신부들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 이후 춘천교도소 재소 시절

장일순은 재해대책사업에서 아무런 공식 직책을 맡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역 운동가들을 후원하고 안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도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없었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투옥과 은거의 긴 시간을 보냈던 장일순은 지학순 주교와 함께 재해대책위원회와 지역개발 사업을 돌보면서 새로운 대중적 협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후에 <가톨릭농민회 30년사>에는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을 “이제까지 없었던 농민 스스로의 민주적, 협동적 경험에 의

한 농촌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기 재해대책사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협동운동에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조(自助)의 원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당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일순은 천재지변의 재해를 당한 피해 주민들을 단순히 구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재해대책위원회는 피해 주민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구사업에 참여해 일을 해야 쌀이나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피해 현장에 실무자들을 파견할 때도 ‘지도’나 ‘지원’이 아니라 ‘상담가’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도록 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한우작목반, 약초작목반, 신용협동조합 등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장일순은 일시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도움은 자립(自立)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당시 처음 시도한 재해대책 사업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는 꼭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이문영 교수, 건국대 김병채, 이우재 교수 등 당대 유수한 경제학자, 농업 농촌 전문가들이 이 사업의 교육과 자문에 흔쾌히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거니와 오로지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실천적인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협동(조합)운동은 당사자 운동입니다. 삶의 문제와 필요를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는 운동입니다.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에 제출된 A. 레이들로 박사의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의 본질에 대해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운동은 당사자들의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운동의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주인인 평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의 경영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지속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주식회사로 바뀌거나 대리인들에 의해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협동조합 조직은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도 5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고, 협동조합 외부의 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협동조합 조직의 복잡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협동조합이 점차 사업과 경영문제, 즉 조합의 경제적 생존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은 일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직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균형과 긴장감을 잃고 자본주의 기업과의 경쟁에만 몰두하여 사업과 경영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비록 생존 기간을 늘일 수는 있겠지만 생존의 의미는 약화되고 결국 협동조합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역으로 사회적 목적과 가치만을 중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자선단체에 머물다가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답은 협동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감 있게 성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영의 현실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 협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극복해 나간다는 일관된 노선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직면한 일정한 단계, 조성된 국면과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추구가 잠시 소극적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반대로 일정한 경영적 손실을 감내할지라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쟁력과 가치 가운데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사회적 본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자본 구성과 운용, 재화의 공급과 영업, 배당과 유보 등 경영 문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와 참여라는 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나 조합원들에게 무엇을, 어떤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 적정한 공급과 구매량, 손실과 수익의 처리 등 모든 경영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결사체로서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두 가지 모두를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성, 양극단의 이중적

편향을 제어하는 방법은 조합원 참여와 이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사업은 장일순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재해대책사업에는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원주와 전국의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피해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해외에서 구호자금을 끌어오고, 장일순은 원주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인재들을 마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금과 사람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협동과 신뢰의 관계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자금과 사람을 준비한 다음, 협동조합 교육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재해대책사업의 원칙과 방법을 세워나갔습니다. 재해대책사업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방법을 보완했지만, 사업의 원칙에는 한 치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대책사업은 1972년부터 시작되어 조직된 신용협동조합 숫자만 74개에 이르렀고 3개 도, 13개 시군, 47개 읍면, 129개 리(里)와 17개 광업소가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질적 재정적 기반보다 이를 운영하는 협동과 신뢰의 관계 체계를 우선하는 것은 비단 재해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협동운동의 모든 성공한 사례와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A.F. 레이들로(1980), 김동희 역,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가톨릭 원주교구 홈페이지, <http://www.wjcatholic.or.kr/>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김선미(2017), 『한살림 큰 농부 - 인농 박재일 평전』, 한살림
네이버 블로그, 「황도근의 자료창고」, <https://blog.naver.com/ndghwang>
무위당사람들 엮음(2022), 『대장부,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6. 민주화운동과 ‘원주그룹’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와 같이 1960~70년대 두각을 나타낸 발전도상국들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도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민주주의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여기에는 때로 목숨을 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성공한 발전도상국 사례가 되었습니다. 원주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왜 원주라는 변방의 도시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기억되고 있을 까요.

20세기 초까지 원주는 인구의 90%가 농민이고, 농민의 80%가 소작농일 정도로 가난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산업이라고는 약간의 양잠업, 가마니 제조, 축산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원주청년회(1922년 창립), 우리구락부(1924년 창립), 원주노동회(1927년 창립), 원주부인소비자조합(1931년 창립) 등이 설립되면서 신간회운동, 계몽운동, 협동조합운동, 여성운동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에서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일제는 1930년대 이후 강압통치를 통해 이들 지역운동 조직들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1935년 일제가 원주노동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면서 원주부인소비조합 등 민간주도의 지역 대중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원주에서도 좌우 정치 갈등과 쟁투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공산당, 민주청년동맹 등 많은 좌익계열 사회단체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조선민족청년단 등 우익 계열 단체들이 활동했지만, 문막과 부론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우익 단체들이 지역적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후 1953년 12월 제1군사령부가 원주시 가현동에 설치되면서 원주는 ‘군사도시’라는 성격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958년과 1960년 장일순이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지역의 ‘보수성’이라는 두터운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원주지역은 일제하에서부터 해방공간까지 어렵게 내려온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치세력의 맥이 거의 사라지고 보수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주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1965년 3월 지학순 신부가 초대 원주교구 주교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가톨릭 원주교구는 강원도 원주시와 원성군, 영월, 삼척, 정선, 경북 울주군 등 산간벽지의 농산어촌과 탄광촌이 대부분인 가난한 지방 교구였습니다. 교구 재정의 97%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온 구호, 원조 자금에 의존했고 골롬바노회의 외국인 신부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부임 직후 로마로 출국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원주로 돌아와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한 교회 개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교회상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제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교회일치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가톨릭과 모든 교회의 하나됨, 교회와 사회의 정의로운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과 교통했으며 수시로 개신교 목사를 주교관으로 초대해 토론하고 강론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교회의 쇄신과 평신도 운동,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꾀할 때 만난 사람이 장일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일순을 통해 김영주, 장상순, 박재일, 김지하, 한기호 등 일단의 젊은 인재들이 원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장일순을 원주교구 사도회 회장에, 김영주를 주교 비서실장 겸 기획실장에 임명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속의 실리와 이해관계에 초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과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젊은 인재들은 지학순 주교의 구상과 실천에 현실적 힘과 지혜를 주었고, 가톨릭 원주교구는 이 젊은 인재들이 잠시라도 권력의 강압을 피해 몸을 숨기고, 또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을 중심으로 원주지역의 지역운동가들이 성장하였고, 장일순과 김지하를 통해 1960년대와 70년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선진활동가들이 원주로 모여들면서 원주는 새로운 희망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원주그룹’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원주그룹>

구분	성명	출생 연도	학력	활동 연도	당시 직책
원주 출신	지학순	1921	로마 푸로파간다대학 (교회법)	1965	원주교구 주교
	장일순	1928	서울대 미학과	1965	원주교구 사도회장
	김영주	1934	대학 중퇴	1965	주교 비서실장 겸 기획실장
	장화순, 장상순	1937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1969	진광고등학교 교사, 협동교육연구소
비원주 출신	박재일	1938	서울대 지리학과	1970	협동교육연구소
	김영일 (김지하)	1941	서울대 미학과	1965	원주교구 기획위원

※ 김소남(2013), 「1960~19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45쪽.

김영주는 원주 태생으로 서울 경기중학교를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등록만 하고 학업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주는 한국전쟁 후 강원도 양구에서 고교 교사로 3년쯤 있다가 그만두고 있을 때 원주 시내 다방에서 장일순을 운명적으로 만나 의기투합해 평생의 동지 관계가 된 인물입니다. 김영주는 1957년경 장일순과 인연을 맺은 후 틈나는 대로 만났고 늘 스승으로 존경했으며 1960년 장일순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김영주는 그후 세계일보 원주 춘천 주재 기사를 하다가 5.16쿠데타 이후 언론 탄압으로 신문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가 막연해지자 그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덜컥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워낙 명민하고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승진을 거듭해 강원도청 공보실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 늦은 가을, 그는 장일순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장일순에게 원주교구에서 함께 일하며 자신과 손을 맞출 사람을 천거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장일순과 서로 동지적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김영주는 도청 공보실장 자리를 미련 없이 그만두고 원주교구 기획실장 겸 주교 비서실장을 맡아 어려운 시기 그야말로 원주그룹의 만형으로 대소사를 막힘없이, 소리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박재일은 서울대 재학시 학생운동의 지도부로 김종태, 김지하와 함께 6.3 한일 회담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1964년~1965년경 고조되었던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 하에 박정희 정권이 한일 수교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학생과 시민들이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김지하가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벗’ - 외우(畏友)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재일은 강직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경북 영덕 출신이며 평소 농촌 현장에서 세상을 개선, 개혁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김지하의 소개로 원주에 정착 후 1969년 진광중학교 영어 교사로 있다가 진광중학교 부설 협동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옮겨 일하면서 재해대책사업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에 몸담으면서 쌀 생산비 전국조사사업을 전개했고 1982년 가톨릭농민회 제6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1986년 한살림농산을 창업하고 한살림운동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장일순의 둘째 동생 장화순은 대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67년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진광중학교를 설립하자 초대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진광중학교는 가톨릭 원주교구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면서 종교수업을 하지 않았고, 대신 주1회 ‘협동’이라는 과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장화순은 원주지역의 교육사업과 천주교 원주교구의 사목 일에 헌신했으며 형 장일순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장일순이 3년여 감옥생활을 한 후 늘 정권의 감시와 탄압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집안의 장형 장일순의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감시 하에 놓인 장일순의 가장 큰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장일순이 어려운 상황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장화순은 흔쾌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셋째 동생 장상순은 서라벌 예대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고 충무로에서 신상옥 감독의 조감독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 원주에 돌아온 후에도 1962년 연극 ‘푸른 성인’, 1964년 ‘햄릿’, ‘오델로’, ‘베니스의 상인’ 등을 연출한 정통 연극인이었습니다. 1967년에는 ‘산야극회’를 창립하는 등 원주지역 연극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6년 원주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형 장일순의 권유로 1969년부터 진광중학교 협동교육연구소 간사를 맡아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전문가로 탈바꿈해 강원도 일대 신협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장상순은 협동조합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회계업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명강의로 유명했습니다.

장화순, 장상순 형제는 장일순의 분신이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들이면서 형 장일순의 지향과 실천을 누구보다 잘 알고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이 형제들이 없었다면 장일순 역시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지하는 목포에서 태어나 아버지 직장을 따라 원주로 처음 오게 되어 원주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타고난 문학성을 발휘했고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김지하는 원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원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서울대 운동가 그룹에 있던 선배 박재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초여름 김지하는 출옥 후에도 쫓기며 박정희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원주를 오가는 중에 장일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장일순도 출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김지하는 그 때 만남에서 장일순이 “지금 가톨릭은 어둡고 답답해. 그러나 이제 창문을 열기 시작하면 개인 구원과 사회변혁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거야. 그 힘을 타고 개혁과 민주화와 통일의 길을 찾아보세.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사상과 노선과 세력과 근거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지하는 1966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보기관에 쫓기며 민주화운동을 계속 하던 중 1968년경 기관지에 구멍이 뚫리는 기흉이라는 병을 앓게 되어 서대문 시립

병원에 2년여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퇴원 후 김지하는 후배 오윤 등과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70년 5월 「사상계」에 담시 ‘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가 100일 만에 석방되고 곧이어 11월 13일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 항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하는 곧 원주의 장일순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장기표와 조영래 등과 가톨릭노동청년회를 결합해 후속 대책과 노동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김지하와 장일순은 간디사상과 비노바 바베의 경제노선과 교육운동, 몽양과 중도주의, 가톨릭시즘과 동양의 종교, 한국의 합법적인 주민·시민운동과 민중민족노선 등 당시 사회변혁과 관련한 방대한 주제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김지하는 이러한 토론의 끝에 혁신적 가톨릭시즘과 민중민족노선의 결합, 합법적인 신용협동조합운동이나 노동자·농민운동 속에서 민족의 새 이념과 통일의 주체를 길러내는 것, 나아가 인간의 내면적 혼의 평화와 외면적인 사회변혁운동의 통합이 총체적인 목표로 구체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주그룹’의 큰 그림인 셈입니다.

어느 날 장일순은 원주 가톨릭센터의 작은 방에서 진행되던 제2차 공의회 문헌학습모임에 김지하를 초대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장일순과의 만남을 통해 제2차 공의회 운동의 개요를 파악하고 있었던 김지하는 가톨릭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이 자리에서 얻었습니다. 김지하는 원주 사람들과 가톨릭운동조직을 서울의 언론계와 문화운동계, 정당 인사 등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을 오갔습니다.

김지하는 우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벗, 박재일을 찾았습니다. 농촌으로의 지향이 뚜렷했던 박재일은 소도시 운동의 거점으로서 원주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원주 가톨릭교구가 운영하던 진광중학교 교사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김지하 역시 원주로 거처를 옮겼고, 얼마 후 원주 단구동 성당에서 이영섭 신부의 집전으로 김지하, 박재일, 이창복 세 사람은 함께 가톨릭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김지하는 원주 학성동 주교관 근처에 살면서 가톨릭 원주교구 기획위원으로서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대표작 ‘금관의 예수’가 처음 무대에 오른 곳도 원주가톨릭센터였습니다. 김지하가 원주에 머물면서 서울

지역의 학생운동가들과 임진택, 채희완, 김민기 등 민족민중문화 예술인들이 원주로 집결했습니다.

한 마리아(Maria Sailer·1939~2019)는 독일 남부 레겐스부르크에서 태어난 독일 여성으로 뮌헨 공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와 개발지원 사업의 뜻을 품고 1965년 경북 구미에서 농촌, 농민운동을 시작한 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이후 가톨릭농촌청년회와 가톨릭농민회에서 국제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천주교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을 도우며 원주와 인연을 맺었고 1986년 직거래운동, 한살림농산에 대한 독일 미제레올 재단의 자금지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의 농업, 농촌, 여성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한 마리아는 원주그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시다. 1970년대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은 1971년 10월 5일 원동성당에서 열린 ‘원주 MBC 부정부패 규탄대회’였습니다. 원주MBC는 MBC본사에서 60%의 자본을 내고 원주교구에서 나머지 40%의 자본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1970년 9월 개국했습니다. 당시 MBC 최대주주는 5.16장학회였는데 박정희의 친인척, 동서, 대구사범학교 동창 등이 핵심 임원을 차지하고 전횡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개국 후 지학순 주교가 원주MBC 회계감사를 받아보니 애초 MBC본사와 5.16장학회가 투자하기로 한 60% 자본은 한 푼도 입금된 적이 없고, 그동안 원주교구가 출자한 자본으로만 운영되었으며 그마저도 3백만 원 가량의 거액이 원주MBC 설립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주교구가 낸 1천7백만 원은 외국의 원조자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던 터라 지학순 주교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1년 10월 5일 오후 7시 30분 지학순 주교와 사제들, 신도들은 원동성당에 모여 원주MBC의 부정부패를 낱알이 폭로하고, “권력만 믿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과 불의의 표본인 5.16장학회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은 정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와 정부에 보내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사제들과 신도 2천여 명은 원동성당을 나와 KBS 원주방송국 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 참여한 신자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먹으면

서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박정희 물러가라’는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평신도 운동을 통해 다져진 아래로부터의 힘이 원동력이 되었고, 교구의 평신도 조직, 청년회 등이 총동원되어 외곽을 튼튼히 지켰으며 안동교구의 두봉 주교, 전주교구의 김재덕 주교가 지지 방문을 하면서 이 싸움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투쟁의 전략은 장일순과 김지하, 김영주 등이 사전에 세밀히 기획했습니다. 김지하는 서울대 학생운동과 6.3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수없이 기획, 주도한 바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허를 찌르는 시위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지휘했습니다. 김지하, 박재일, 김영주는 주교관에서 전체 시위를 빈틈없이 총괄해 나갔습니다. 김지하와 연결을 맺고 있던 조영래 변호사는 두 차례나 원주 주교관을 다녀갔는데, 김지하가 쓴 성토문과 부정부패 척결 결의문 등 주요 문건을 사전에 인쇄하여 동아일보와 외신, 재야의 박형규 목사, 박홍 신부, 서울의 학생운동 지도부에 비밀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2천여 명의 신자와 시민들이 원동성당에서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동아일보가 대서특필하고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이재오, 최영희 등 서울의 여러 민주인사들과 학생운동 지도부가 원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흘 간 원동성당은 햇불로 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주MBC 측이 사과하고 원주교구 측 인사가 방송국 경영진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면서 지학순 주교와 원주 사람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 교계는 사회의 부정부패에 과감하게 발언하고 정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갔습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가톨릭학생회관에서는 ‘사회정의 실현 촉진 기도회’가 열렸고, 광주 대건신학대학 학생들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계 대표자 50여 명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MBC 부정부패 규탄’시위를 통해 원주는 저항의 도시로 각인되었고 서울과 경향각지의 많은 민주인사들이 원주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지학순 주교, 김지하, 장일순 등 원주의 사람들을 ‘원주그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1973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사목교서를 통해 “올해 우리 교구의 활동 목표를 사회정의 실천으로 설정하고 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교구로 서울의 재야인사, 대학

교수, 학생운동가들이 수시로 모여들어 강연을 하고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이우재, 김병태 교수가, 노동문제는 김금수, 곽창렬, 이상호 선생이 자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찬국 교수, 이문영 교수, 박형규 목사 등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원주가 민주화운동의 구심이자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거점이 되어가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고문으로 용공 조작하여 재야와 야당, 학생운동 세력을 말살하려 획책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김지하 등 180여 명의 학생, 지식인, 재야인사들이 구속되었고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학순 주교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활동자금을 주었다고 헐뜯었습니다. 급기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주교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지학순 주교를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공항에서 연행하는 폭거가 일어났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1974년 7월 3일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신헌법은 민주헌정을 파괴하고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해 7월 16일 박정희 정권은 지학순 주교를 내란선동 및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비상군법회의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가톨릭 주교를 구속하고 유죄 판결한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하자 김수환 추기경과 전국의 가톨릭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위한 기도회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1974년 9월 23일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사제들은 원주 원동성당에서 철야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을 결성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3일 뒤 서울 명동성당에서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구속된 지 7개월만인 1975년 2월 17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지학순 주교가 원주 원동성당으로 돌아오던 날 인구 10만 명의 원주시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원주역에서 원동성당까지 대로변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호산나’, ‘지학순 주교 만세’를 외쳤고 시민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주교의 발아래에 깔았습니다.

원주가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원주교구와 장일순의 집을 찾는 민주

화운동가들도 넘쳐났습니다. 원주교구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수배를 받아 쫓기는 사람들에게는 피신처가 되어 주었고,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사색과 토론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장일순은 자신 역시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제자들을 통해 은밀히 필요한 장소나 거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돌고 돌아 서울에 전해졌고 그럴수록 원주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도하는 신군부는 대통령 최규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직접 집권하기 위해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빌미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재야 민주화운동의 지도부를 무차별 검거했습니다. 원주에서도 박재일, 이공래, 이경국, 김상범, 이창복, 정인재 등 핵심인물 10여 명이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1980년 4월에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던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동원탄좌에서 '사북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원갑, 신경 등 탄광노조 운동가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당시 어용노조 지부장의 행패에 항의하던 중 이를 정탐하던 사북경찰이 발각되어 도망가다 광부 1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노한 광부들이 평소 불만이었던 회사 건물과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와 광부 측이 협상을 벌여 합의문을 작성하고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뒤늦게 계엄당국이 시위 광부들을 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고문폭력을 가해 30여 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입니다. 평소 탄광 광부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지학순 주교는 군법회의가 열린 원주 1군사령부에 달려가 광부들의 비인간적 삶과 탄광회사의 비리와 부패상을 알리고 주동자로 잡힌 30여 명의 광부들의 석방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주교구 수녀 1백여 명이 군사재판을 방청했고, 교구에서는 끌려간 광부들의 가족 생계를 위해 연탄과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임광규 변호사에게 변호비용 5백만 원을 주고 구속된 광부들의 변호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원주교구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2년 원주교구 사목국장 겸 교육원장을 맡고 있던 최기식 신부가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동자들을 숨겨주

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해 3월 12일 광주학살에 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부식과 김은숙 등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대학생 1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학생운동을 불순좌경, 과격폭력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문부식과 김은숙이 수배를 받아 쫓기던 중, 원주를 찾아와 최기식 신부에게 숨겨줄 것을 부탁하자 최기식 신부는 원주교구 교육관 지하에 잠시 피할 곳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최기식 신부는 곧이어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함세웅 신부와 만나 학생들의 자진출두를 상의하고 당국과의 중재를 의뢰했습니다. 이윽고 학생들이 자진출두하자마자 수사기관들은 최기식 신부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권과 언론들은 교회가 좌경세력을 숨겨주었다고 터무니없는 선동을 했지만 지학순 주교는 ‘비록 죄인이라도 고통 받는 어린 양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묵묵히 교회의 역할을 해 나갔습니다.

1984년 즈음 지학순 주교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원주그룹의 핵심 활동가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주가 제일 먼저 1985년 교구 기획실장과 주교 비서실장을 그만두었고 박재일도 1986년 한살림농산을 준비하면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산지역 신협운동을 이끌던 이경국도 신협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1987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즈음 장일순은 가끔 약주를 하면서 원주를 떠난 이들을 그리워했는데 항상 눈가가 붉게 물들곤 했습니다.

1965년경 가톨릭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의 만남을 계기로 가톨릭 공의회운동과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등 원주를 기반으로 사회운동가들이 결합하면서 반독재민주화와 생명평화운동에 크게 기여한 일단의 원주 사회운동가들을 ‘원주그룹’, 혹은 ‘원주캠프’라고 부릅니다. 원주와 원주그룹은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많은 선각자들이 핍박받던 어두운 시기에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거처이기도 했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이 집결하는 교차점이기도 했고, 아래로부터 민초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운동의 발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은 원주, 그리고 장일순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만 하더라도 1975년 이른바 ‘서울대 5.22사건’으로 쫓기는 신동수를 신현봉 신부에 팔려 원주에 보낸 것을 비롯해, 이른바 박형규, 김관석 목사의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자금 사건으로 절박하게 쫓기게 된 손학규가 원주에서 그 소낙비를 피하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쫓겨 오는 사람들을, 누구는 어디, 누구는 누가 보살피도록 안내하고 뒤를 봐준 것이 무위당 장일순이었다”

하지만 정작 장일순 본인도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광주항쟁 등 시국이 험악해질 때마다 몸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원주그룹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 혁신운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가톨릭의 사회참여운동, 1972년 남한강 재해대책사업과 대중적인 협동운동의 확산을 주도하고, 1971년 원주MBC 부정부패 규탄시위,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지학순 주교 구속사태, 1980년 사북항쟁, 19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최기식 신부 구속사태, 그리고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과 1986년 한살림 창립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근대문명과 산업발전이 낳은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제기하고 생명살림 세상으로의 사회전환, 문명전환을 위해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들었습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김소남(2013), 「1960~19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지하(2003), 『김지하 회고록 - 흰 그늘의 길2』, 학고재
- 무위당사람들 편(2019), 『묻혀서 사는 이는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무위당사람들
- 무위당사람들 편(2022), 『대장부-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 이영화(2006),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과 활동」,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정현경(1997), 「새로운 문화와 공동체운동」,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7. 민주화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

1970년대 경제발전은 농민, 농업, 농촌의 희생으로 쌓은 우골탑이었습니다. 우골탑은 60,70년대 시골의 부모들이 소를 팔아 대학 다니는 자식들의 공부를 시켰다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에 대해 학생과 지식인들이 자조적으로 만든 말이었습니다. 소뺨가 아니라 부모들의 뺨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출 100억 달러, 식량자급 등 눈부신 경제성장의 속살은 실은,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 위에 자란 화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담보하고, 다수확 생산을 목표로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무차별 퍼부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식량자급을 목표로 정부가 농촌에 강제로 보급한 통일벼 품종은 필리핀에서 도입한 종자를 개량한 것이었는데 전형적인 다비성 품종이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료를 뿌려야 하고, 그 결과로 병충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농약으로 거미나 지렁이 등 생태계의 유기체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니 또다시 비료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들판에서 농약 사고로 죽어갔고 토양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 사막화되어갔습니다.

사실 장일순이 유기농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부친의 포도농사를 이어서 하던 196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일순의 부친은 농약과 비료,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어 가끔 장일순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학농약, 화학비료의 일시적 효과를 본 일반 농민들은 화학농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화학농사의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장일순은 대성고등학교 학생시위 사건으로 법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역의 학생,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농사는 가급적 유기농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일 역시, 1970년대 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일순은 박재일에게 “땅 살리는 거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미래 농업이 더 이상 자연을 죽이는 농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 말 농사를 지을수록 쪼들리는 농가살림에 늘어나는 농가부채, 쌀값 문제로 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화학농업의 한계는 점점 뚜렷해지고 국가농정은 막다른 길에 처해 있었습니다. 1977년 쌀 생산량이 4,170만 섬에 이르러 쌀 자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했으나, 1978년 발생한 극심한 도열병 피해로 쌀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1978년 이래 3년 연속된 재해로 쌀 수입량이 급증했는데, 1979년에 50만 1천M/T (347만 9천섬), 1980년에 58만M/T(402만 7천섬), 1981년에는 224만 5천M/T(1590만 섬), 총 합계 332만 6천M/T(2309만 7천섬)이라는 엄청난 양의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죽이는 농업을 멈추고 농약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살리는 길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의 출발은 죽어가는 농민, 죽어가는 땅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일순은 농촌, 농민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제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땅이 죽고, 건강한 먹거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사람도,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대량소비, 대량소비를 통해 유지되는 대량생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독점이윤,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지구 생명의 역사를 가장 단기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불과 2백여 년 만에 자원의 고갈,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합리주의와 효율성을 제1의 선택기준으로 삼은 근대 산업문명의 결과이자 한계였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의 문제를 장일순만 고민하고 답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사자인 농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잇따르는 농약사고와 농업의 해체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빈곤이 단순한 기술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란 점을 깨닫고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가톨릭계 농민조직들이었습니다. 1966년 10월 경북 구미에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JAC)>가 창립되어 전국 주요 농촌 교회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야간학교, 협업양계, 협업농장, 신용협동조합, 협업양돈장 경영을 추진했습니다. 가톨릭농촌청년회는 농민 교류를 통해 ‘분회-교구연합회-전국연합회’ 조직으로 발전해갔으며 1972년 4월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출범했습니다. 가톨릭농민회는 ‘농민권익의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내

결과 '쌀 생산비 조사사업', '농민교육사업'을 전개했고 그 결과 그동안 농민, 농민 단체에 관한 낡은 관념들을 깨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농민운동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톨릭농민회의 새로운 활동은 1973년 남한강 일대의 홍수피해를 구호하기 위한 가톨릭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 농민 스스로에 의한 민주적-협동적 농촌개발사업의 경험들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장일순은 수재민들의 재해대책사업을 마무리한 후 새로운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장일순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 과연 단순히 공정한 분배와 현존하는 불의한 권력의 극복에만 머물고 말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머문다면, 분배의 기준을 놓고 사회 각 부문이 다시금 쟁투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불의한 권력을 물리치더라도 언젠가 다시 불의한 권력의 부활에 맞서야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끝없는 쟁투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향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일순은 그 화두를 '생명'에서 찾았습니다. 농업문제가 농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문명의 필연적 귀결이며 이를 극복하는 길은 생명으로의 회심, 새로운 생명의 세계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일순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농업의 원리에서 생명운동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허구적인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산업문명의 알고리즘에서 탈출해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장일순은 1980년 12월 감옥을 나온 김지하에게 '생명사상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김지하가 감옥에 있을 때 장일순은 동학 관련 서적을 자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김지하도 감옥 안에서 생명의 각성과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세웠고 출옥 후 이것이 장일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박재일의 사회로 황인성, 나상기, 제정구, 정호경 신부 등 다양한 민주인사들과 김영주, 김지하, 이경국, 김상범 등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1981년 겨울,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열린 생명사상 세미나에서 재해대

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운동 방향,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장일순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유물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운동이 공평하게 나눠먹자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자연의 약탈과 파괴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생명운동의 확산을 투쟁적인 방식이 아닌 협동의 방식으로, 현실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의 공부모임은 1982년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이른바 ‘원주보고서’라 불리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에 집약했습니다. 김지하가 작성하고 장일순과 모임 참석자 모두의 윤독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원주보고서는 개요, 5개 항목의 본문, 12개 항목의 주해, 10개의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보고서의 핵심은 생명의 세계관 관점에서 산업문명의 폐해와 인류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명운동을 제시하면서 생명론의 내용과 운동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피폐해진 민중의 삶과 인간성 상실, 인간과 범생명의 물질화, 대량생산 대량소비 숭배 등이 횡행하는 근대 산업문명으로 인해 죽음의 먹구름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의 배후에는 생명 경시와 생명 파괴, 반생명적 세계관이 터를 잡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상으로 동학의 해월 최시형이 말한 삼경(三敬), 즉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 사상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장일순은 평원동 집 바로 앞에 천도교 포교소가 있었는데 1946년경 그곳에서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의 사상을 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훗날 어떤 이는 장일순이 왜 동학에서 새로운 전환의 사상적 근거를 찾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유불도를 포괄하는 우리의 사상이고 그 실천이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변혁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기나긴 준비와 고통을 감내했고, 나아가 그 가르침이 일상의 언어와 실천을 통해 펼쳐졌다”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월 최시형이 겪은 수십 년간의 도피생활, 그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민중과 함께 한 낮은 삶, 밥과 생명이라는 평범한 언어에 담긴 시대에 관한 비범한 통찰 등이 결국 장일순의 삶, 언어, 실천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전쟁의 후과로 말미암아 도피와 은둔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민중과 함께하는 삶과 언어를 통해 더

큰 미래에 대한 낙관을 만들어갔던 해월의 삶과 사상, 그리고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권력의 대척점에 서서 원주를 기반으로 소외된 삶의 협동과 공생, 포용을 강조했던 장일순의 삶과 사상은 1백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큰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19세기 서세동점의 위기와 20세기 근대산업문명의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참된 삶과 사회적 구원을 동시에 추구했던 두 사람의 세계관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민주화운동 세력은 생명운동, 유기농운동, 협동운동이 무기력한 개량주의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민주화라는 긴급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일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화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활운동, 생명운동이 이 시대에는 절실합니다. 1%의 시민이 힘을 모아 이 운동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숫자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옮기는 거대한 문명 전환 운동을 장일순은 담쟁이덩굴이 담을 넘듯이 ‘낮게 기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절벽을 양보와 겸손이라는 지렁이 걸음으로 넘고자 했습니다. 장일순의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사색과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저 절벽을 망치로 부수고자 한다면 그럴 수록 가진 자들은 더 큰 옹벽을 쌓을 뿐이므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느린 걸음, 낮은 자세로 한 땀 한 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옮기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화 작업하는 무위당

김지하의 생명운동 세미나와 ‘원주보고서’는 이후 ‘한살림연구회’로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구회(준비모임)는 11차례 학습모임과 4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동학사상과 생명론, 일본의 생협운동,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유럽의 녹색운동 등 동서양의 전통사상과 최신 이론들이 비교 검토되었습니다. 1988년 장일순은 한살림운동과 한살림연구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동에서 자신의 서화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0월 29일 대전 신협연수원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김지하, 김민기, 최혜성 등 생명운동가, 재야 민주인사, 지식인, 청년, 협동조합운동가들은 한살림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문헌

- 권영근(2020), 「경북지역농민운동사 초록」, 미간행
- 김기섭(2021),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1호, 103~132쪽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무위당사람들 편(2022), 『대장부-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 이우재(1991),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8. 한살림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 모임 창립 총회(신협연수원)

1989년 10월 29일 대전 신협연수원에서 열린 <한살림모임> 창립총회에서 「한살림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 발표될 당시 80여 쪽, 5만여 자로 쓰여진 한살림선언은 크게 ‘문명위기론’, ‘생명론’, ‘한살림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살림 선언은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산업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징후를 핵 위협과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그리고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 등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회조직, 가치체계, 세계관은 핵공포와 환경오염, 암과 정신분열증, 폭

력과 범죄, 물가고와 불황,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등과 같은 위기적 상황의 진상임을 규명하고 처방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낡은 것으로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히려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약 300년간 서구인들이 주도해온 세계질서와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관, 가치체계, 문화 모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평가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살림선언」은 먼저, 산업문명을 옹호하면서 소위 과학적 방법과 분석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기계론적 이데올로기를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과학지상주의, 정신/물질, 이성/감성, 개인/사회로 구분 대립하는 서구 근대철학의 이원적 존재론, 뉴턴 역학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인과법칙, 생명과 인간정신을 부분의 합으로 인식하는 요소론적 생물관과 기계적 정신분석학, 무한성장을 전제하고 추구하는 경제이론,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반생태적 자연관 등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지배적인 산업문명은 비록 합리성과 능률성을 표방하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거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 되어 가고 있지만 한정된 채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인 화석연료 없이는 작동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죽음의 세계이며 오늘날 산업문명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산업문명은 생태계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기계와 흡사한 세계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지만, 실제 파멸하는 것은 기계문명의 낡은 틀일 뿐 인류 그 자신은 아니라고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진화해 나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의 외부에 있는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일시적인 안정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볼 때 정태적 구조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는 동요와 진동 속에서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변화를 촉진하고 증폭함으로써

낡은 구조를 버리고 새 질서로 진화하는 자기 초월을 수행하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우주적 관계의 그물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 안에 우주적 생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 할 수 있다. 생동하는 우주의 진정한 모습은 모든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아우르면서 진화하는 큰 생명의 무궁한 펼쳐짐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환경과 협동하여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우주의 궁극적 생명으로 합일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기계와 달리 끊임없는 생성과 자기조직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은 부분들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 전체로서 경직된 통제가 아니라 부분들의 자율과 다양성을 조정하는 유연한 질서를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자유와 필연, 일탈과 법칙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생명은 내부의 역동적인 되먹임(feedback)을 통해 평형상태와 비평형상태를 오고 가며 부단히 자기보존과 자기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적극적인 되먹임으로 낡은 질서가 해체되는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생명은 창조적 진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살림선언에서 생명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한살림선언은 생명의 본질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은 단순히 인간의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실재에 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활동”을 말합니다. 물질도 정신의 반대가 아니라 우주적 한 과정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생물체와 달리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외부의 실재를 자기 안에 반영하는 반사정신(反射精神)을 창조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을 감각하고 경험하며 생각하는 반사정신으로써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의식뿐만 아니라 사고와 언어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진화에서 정신의 진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인간의 정신은 자기보다 큰 생명인 공동체와 생태계의 질서에 참여하고 지구의 정신에 통합되며 종국에 가서는 거룩한 우주의 마음과 합일”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주와 합일하는 경지’라는 것은 마치 유명한 A.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언급되는 자기실현, 자기초월이라는 궁극적 단계와 유사해 보이는데 “자기 한계를 초극하여 진화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느끼는 거룩함”이라고 선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살림선언에서는 창조적 진화의 결과인 인간 정신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그 이상으로 자기 밖의 공동체와 생태계 질서에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탈취하면서 생존해 왔다면 이제 그 이상으로 공동체 이웃을 생각하고 생태계의 이웃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주 속의 형제 생명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선언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부분이자 전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사물은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기에 동등하게 존귀하며, 따라서 서로를 모시고 살리지 않으면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대상화하는 인간의 지배욕은 결국 인간의 소외와 공동체의 파괴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의 생명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각성이자,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자는 성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살림선언의 생명론은 우리 민족의 ‘한’사상과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을 인용하면서 구체화됩니다.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이천식천(以天食天),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 향아설위(向我設位), 후천개벽, 십무천(十毋天), 불연기연(不然其然) 등 동학사상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 속에서 시대전환의 결정적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동학사상은 사람과 생물, 심지어 무기물에까지 근원적 생명, 즉 한울님이 내재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과 물질이 차별 없이 평등하며 모든 만물 생명을 공경(敬天, 敬人, 敬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월 선사가 여성,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특별히 공경하라 한 것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천식천(以天食天)은 동질적인 생명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먹이사슬 순환을 통해 성장발전하고 진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불연기연(不然其然)이라는 개념 역시,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진리들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 세상 모든 지혜가 숨

어 있다(萬事知 食一碗)는 해월 최시형의 말씀은 평범함 속에서 참다운 진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은 단순한 쌀알들이 아니라 그 쌀을 만든 농부의 피와 땀, 햇빛과 바람과 비, 땅의 온갖 유기물, 무기물들이 합심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어느 것 하나의 힘만으로는 밥 한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문명의 위기를 돌아볼 때, 2백여 년 전 선각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혜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서구의 탈근대사상, 포스트휴머니즘,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철학이론들 역시 인간중심주의 극복, 인간과 물질 관계의 재해석, 생명의 전일성에 관한 일맥상통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선언은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한살림’을 제안합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살림은 그 세계에 있어서는 물질, 생명, 정신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우주 생명에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 자연, 우주 모두가 동요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자기를 조직하는 생명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에서 그 이론적인 전거를 찾고 있다. 한편 한살림은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오랜 전통과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그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고 있다. 동학은 물질과 사람이 다같이 우주 생명인 한울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생명임을 깨닫고 이들을 ‘님’으로 섬기면서(侍) 키우는(養) 사회적,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자기 안에 통일하면서 모든 생명과 공진화해 가는 한울을 이 세상에 체현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시천과 양천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음을 동학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살림운동은 이러한 우주적, 생태적, 공동체적 각성에 기초해서 전개되는 생활문화운동이며, 사회실천활동이자 생활수양활동입니다. 한살림 생활문화운동은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전체 생명과의 연결성을 깨닫고 각성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협동하면서 공생하고 생태계와 균형되고 조화스러운 생활문화를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실천활동은 인간을 억압하여 소외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죽임의 정치질서와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민족

과 인류가 다 같이 살자는 사랑과 평화, 생명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생활수양활동은 인간 자신은 누구나 성스러운 생명이기에 성실함과 경건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키워 살려야 한다는 윤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수양활동은 자기실현을 위한 수련의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정의,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의 생활문화운동, 사회실천활동, 생활수양활동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활동’으로 종합됩니다. 한살림은 기계문명이 분할시키고 단절시키고 폐쇄시킨 모든 것을 다시 통일하는 운동입니다. 감성과 이성, 분석적 지식과 직관적 지혜, 육체와 정신,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인간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는 생명의 대통일운동이 한살림운동인 것입니다.

한살림선언은 1989년 발표 이후 일본과 중국, 태국 등지로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살림운동에 관한 외국의 관심도 큼니다. 독일 경제월간지 <Brand Eins> 2019년 2월호는 “한살림은 유기농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전세계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곳 중 하나”로 소개하며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자들의 활동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살림선언의 문명 전환의 논리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의연합니다. 20세기말 위기의 징후들은 21세기에 들어 지구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과학자들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최근 지구 온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1.5°C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무렵 지구 육지의 35%, 지구 인구의 55%가 생존의 문턱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조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한살림선언이 경고한 문명의 위기를 우리가 막지 못한 점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이라는 한살림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커져가고 있음도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임채도(2019), “생명과 더불어, 시대와 함께 한 한살림선언 30년”, 오마이뉴스.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살림연구회(1989), 『한살림선언』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9. 한살림농산과 박재일



1989년경 한살림 농장 모임에서

한살림의 탄생은 한살림선언이라는 이론, 문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9년의 ‘선언’은 그 이전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실천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꽃은 뿌리와 줄기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살림이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나타났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살림은 크게 세 가지의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생명의 세계관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입니다. 장일순은 그의 동료, 제자들과 함께 기계적 산업문명의 종언을 내다보고 생명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과 이를 실천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살림선언에는 동학과 한 사상, 풍류도와 같은 우리 전통사상 뿐만 아니라 최신 서구 과학철학의 연구 성과, 68혁명 이후

유럽 진보사상과 녹색운동의 경험 등이 녹아 있습니다. 당대 우수한 실천적 지혜가 집대성되어 한살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농업 농민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농업 현장은 잘못된 농정으로 인해 농업의 총체적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1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확대 보급으로 식량증산, 농업용수개발 사업, 경지정리와 관배수 시설 개선, 농지의 보전과 확대, 농업 기계화 사업,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등이 ‘지역’의 여건, 농업 ‘토양의 토착성’이나 지역농민의 의사, 직접 농사를 짓는 농토의 주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이른바 ‘유신농정’이었습니다. 유신농정의 화학농법으로 비료·농약·제초제 사용에 대한 농민들의 맹목적 믿음의 수준은 높아갔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농약사용량은 1965년 2,955톤에서 1975년 20,550톤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품종선택을 하지 않고, 통일벼를 10년여 재배하면서 질소비료를 과대하게 사용하여 쇠퇴해진 지력소모에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증대만 생각하는 다수확 생산 중심의 재배기술의 습관화와 자연과 인간 간의 필연적 관계를 무시한 결과는 무수한 농민들의 농약중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유신농정의 피해는 박정희 정권의 온갖 이데올로기적인 눈가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농민 스스로에 의한 농민운동’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신체제의 가장 충실한 기반이었던 농민대중이 서서히 주요한 체제 저항세력으로까지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당시 경북 영양군에서는 군 당국과 농협이 ‘78년 잎담배 후작 등 유희농지 활용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라는 구호 아래 가을 감자씨 ‘시마바라(島原)’ 종자를 50kg 1포당 8,000원으로 군내 5개면에 걸쳐 반강제적으로 심도록 했는데, 종자가 거짓인지 불량인지 원인도 모르게, 재배농가의 80% 이상에서 싹이 트지 않아 폐농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1978년 10월 5일 <청기 감자 피해보상대책위원회>(청기면 청기동, 정족동 34개 농가)를 구성, 한 달간에 걸쳐 피해실태조사를 완료(34개 농가 총피해액 780만원)하고 군수, 군 농협장에 피해보상

을 두 차례 서면 건의하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197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농촌이 절망에 빠지고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더욱 절박하게 전개되었지만 격렬한 투쟁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벼 수매가 인상을 외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몇 퍼센트 인상한다고 해서 농업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향이 절실했습니다.

장일순에게 농업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살리면 농민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 소비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이며 모든 유기체, 생명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생하는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농업문제도 근본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일순은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유기농을 하는 분만이 아니라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고 그러는 농사꾼까지도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듯이 모르는 이웃과도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체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자면 땅부터 회복이 되어야겠는데, 이 땅이 회복되
게끔 하자면 비록 고달프지만 이러이러한 농사를 지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 않
겠느냐는 향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살고, 살림을 나눠보고, 그런 걸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장일순은 “우리끼리만 맛있는 것 먹고 우리끼리만 몸에 해롭지 않은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만 운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우리의 이 일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어요?”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농촌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일 리 없습니다. 농촌의 문제가 도시의 문제이고, 생산자 농민의 문제가 도시 소비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한 쪽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함께 힘을 합쳐서 공생하는 길밖에 답은 없었습니다.

한살림이 출현하게 되는 세 번째 역사적 흐름은 원주의 협동운동 경험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남한강 수재와 가톨릭 원주교구의 재해대책사업은 규모 면에서나 그 사업의 내용, 결과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협동의 경험이었습

니다.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원과 역량으로 3개 도, 13개 시군, 47개 읍면, 129개 리(里)와 17개 광업소가 참여하는 대단위 자조적 협동운동이 7년간 전개되었습니다. 74개의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의지, 원주신협과 원주 밝음신협 등 원주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 협동운동의 질 높은 인적 자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979년 재해대책사업이 마무리된 후 장일순과 원주의 협동운동가들은 농업 농민운동과 협동운동의 결합을 모색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산업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과 공해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고 유기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1980년 김영주와 박재일을 비롯해 19명의 원주 사람들은 일본 유기농업의 현장을 돌아보고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1984년에도 김영주의 주선으로 ‘일본 유기농업 연수시찰단’을 조직해 22명이 일본 치바현의 유기농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첫 발기인은 21명이었고 초대 이사장은 박재일이었습니다.

박재일은 한일수교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한 이후 1965년경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였던 김중태와 함께 원주 김지하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의 소개로 처음 장일순을 만났습니다. 장일순은 당시 박재일이 농업 농민운동에 포부를 가진 것을 알고 원주에서 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재일은 그 후 감옥살이를 마치고 1969년 여름 31세의 나이에 처와 어린 딸을 모두 이끌고 원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처음 원주 진광중학교 영어교사로 자리를 잡은 후 장화순 교장, 장상순 협동교육연구소 간사와 함께 교직원과 학생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진광신협’을 만들었습니다. 학내 매점을 만들어 싼 가격에 책과 간식을 공급하고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진광신협을 만든 후 박재일은 교사일을 그만 두고 아예 협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진광중학교 협동교육연구소를 거쳐 재해대책사업 전반을 총괄했고, 1975년에는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때 가톨릭농민회가 전개했던 ‘쌀 생산비 조사사업’은 우리나라 농민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전국 8개도 26개 농사를 대상으로 쌀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정당한 쌀 수매가를 정부에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재일은 1982년 가톨릭 원주교구 사회사업국 사회개발부 농촌부장 업무를 하면서 가톨릭농민회 회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탁월한 일솜씨와 넉넉한 인품으로 주위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가톨릭농민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대표 조직이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전체 농민들의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풀뿌리 농민조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운동가 가운데 가톨릭농민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박재일은 가톨릭농민회 회장을 맡으면서 전국의 농민운동가들을 만나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처음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서 가톨릭농민회 운동을 오래한 농민들이 거름으로 땅을 살리고 쌀, 배추, 파, 마늘 등을 유기 재배하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차츰 충남 아산과 충북 제천, 괴산 등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일은 이들 유기 생산자들과 원주의 도시 소비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1985년 6월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초대 이사로 신문자, 장만자, 김숙자, 이금래, 이경국, 박준길이 선출되었고 초대 이사장으로 박재일이 뽑혔습니다. 조합원 번호 1번은 김영주, 2번은 박재일, 3번은 박양혁이었고 47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무실은 원주가톨릭센터 지하 빈 공간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원주교구의 신자와 신협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班) 조직을 구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무점포 사업형태였습니다. 박재일과 김영주는 공근면의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조금씩 직거래가 자리가 잡히자, 생산된 농산물을 제때에 소비하는 문제가 커져갔습니다. 박재일은 장일순에게 직거래사업을 서울이라는 넓은 소비지로 확장해야겠다는 뜻을 밝혔고 장일순은 그 뜻에 공감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알게 되고, 생산자들은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직거래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장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박재일은 가톨릭 원주교구 사회개발부 이름으로 독일 미제레울 선교회에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곧 미제레울 측에서 필요 경비의 75%를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독일 가톨릭계에서는 이미 재해대책사업을 통해 박재일과 원주 사람들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이 도착하자마자 박재일은 1986년 12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20번지에 세를 얻어 ‘한살림농산’이라는 20평 남짓한 쌀

가게를 열었습니다. 박재일은 간판에 걸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운동이라는 뜻을 담아 ‘한살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장일순은 “한살림! 그것 참 좋은 이름이다. ‘한’이라는 말에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 산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야”라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살림농산 좁은 가게 안에는 공근면의 유정란, 충북 음성군 성미마을의 무농약 쌀, 그리고 원주의 참기름과 메주 등이 소박하게 쌓여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생산자들의 땀과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한살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출한 개소식이었지만 이날 모인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장일순과 최기식 신부, 김지하, 리영희 교수, 이길재, 김규벽, 한기호, 이상국 등과 가톨릭농민회와 노동운동 등 각계에서 온 인사들이 비좁은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안 설명을 박재일이 하고, 장일순이 유기농과 땅을 살리는 철학에 관한 내용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박재일은 1987년 정초에 한살림소식지에 실린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살림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지극히 평범하고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해야 가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이 한살림운동에 많은 분들의 이해와 성원과 참여를 고대합니다.”

한살림에 대해 이보다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친한 사이가 되어서 생산자는 건강한 농산물로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정직한 가격으로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를 널리 확산시켜 땅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일을 더불어 함께 하자는 박재일의 말은 지금까지도 한살림의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김선미(2017), 『한살림 큰 농부 - 인농 박재일 평전』, 한살림
- 대구경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2020), 『대구경북민주화운동사』, 선인
- 무위당사람들 편(2022), 『대장부-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이야기담.
-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10.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장일순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영향을 주신 여성은 누구인지요?” 장일순이 답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어머니이지요. 내가 옥(獄)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몸은 아주 잔약하신 분이지만 아주 슬기로우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에서 장일순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경쟁관계로 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母性, 父性의 입장에 서서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사랑을 고르게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모신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마음이면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간격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니까’라는 생각은 각자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상대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는 당연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 잊게 되는데,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구분보다는 생명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서로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사이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의 어느 한살림 조합원 공동체가 초청한 자리에서 장일순은 “옛날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누룩을 담귀 놓으면 술이 되는 식으로 해라 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해라 이 말이야. 극성스럽게 들어가 이거 해야 돼, 이렇지 말구. 소도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면 제가 먹고 싶어야 입을 여는 거예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는 우격다짐이나 잘난 체하며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심만 더 키워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상대가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장일순의 기억처럼 장일순의 어머니도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고르게 주는 마음이 크셨겠지만, 장일순의 세 아들 동한, 동호, 동천의 어머니, 이인숙 역시 그분보다 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봄별의 따사로움과 같았고, 사람에게 파고드는 말씀이 단비의 윤택함 같았던 분’으로 기억되는 사람, 평생 낮게 기어간 장일순보다 한 뼘 더 낮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본 사람, 이인숙을 기억합니다.



1957년 서울 사회동성당 결혼식

이인숙은 1929년 7월 서울 아현동에서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한학순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여학교를 졸업해 1947년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한 똑똑하고

콧대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었다가 1955년 9월 사범대학을 졸업한 이인숙은 한국전쟁으로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세가 기울어 교사직을 알아보고 있던 중 당시 원주 대성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친구의 소개로 장일순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영원한 동반자임을 직감한 장일순은 원주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펼칠 포부를 이인숙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통의 지향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미래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1957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61년 혁명재판

결혼과 함께 펼쳐질 희망찬 미래는 장일순의 국회의원 낙선과 1961년 군사쿠데타로 인한 감옥생활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기에 대가족의 맡겨느리로 시동생 셋까지 보살피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옥바라지를 위해 구한 교사직도 당시 장일순에 대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원주에 부임한 후 평신도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인숙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동성당 가톨릭부녀회 회장, 원주교구 부녀회 회장, 1977

년 여성 꾸리실료 교육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주민교육, 평신도 교육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주부들이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꾸리실료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찾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낭랑한 목소리로 조용하면서 차분하게 청중들을 설득해나갔던 이인숙의 매력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이인숙과 장일순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인숙은 장일순을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일순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지금 지구 전체가 암에 걸려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나라고 암에 안 걸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숙은 달랐습니다. 장일순이 다시 암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믿고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여 병문안 온 이가 생각 없이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정색을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숙은 장일순이 평탄치 못한 생애를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장일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가 때로 실수하고 대책 없이 ‘낭만적인’ 일을 벌일 때 이인숙은 ‘리얼리스트’로서 따끔하게 얘기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그의 뜻을 존중하며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인숙은 장일순을 가여워했습니다. 이인숙은 장일순이 잘 우는 사람인데, 가슴에 맺힌 그 한을 풀도록 실컷 울게 하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또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늘 가엾게 여겼습니다.



무위당 부부

원주 봉산동 935번지는 몰라도 ‘장 선생 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장일순이 살아있을 때 집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작 장일순은 손님들에게 이 집 주인은 이인숙이고 자신은 하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장일순이 세상을 떠난 후 인적이 끊긴 집을 이인숙은 홀로 지키면서 장일순이 보던 책과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인숙은 장일순이 서거한 지 24년 후인 2018년 10월 26일 조용히 눈을 감았고,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장일순의 묘에 합장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무위당사람들 편(2019), 『묻혀서 사는 이는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무위당사람들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1. 나락 한 알 땅에 묻다

한평생 생명이라는 화두를 안고 살았던 장일순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은 1991년 6월경이었습니다. 위암 말기 진단이었습니다. 원주와 서울의 병원에서 암 치료를 이어갔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이인숙이 원주기독병원 마당에서 세 아들을 부둥켜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많은 원주 사람들이 장일순의 병구완에 진심으로 나섰습니다. 덕수칼국수 이궁래는 대소변을 받아냈고, 천석식당 최정환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매일 맑은 샘물을 떠 오는 사람, 산중에서 영험하다는 약초를 캐 보내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원주사람들은 장일순의 병실을 24시간 지켰습니다. 불치의 병을 몸에 담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도, 지구도 암을 앓고 있고, 자연 전체가 암을 앓고 있는데,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사람이라고 왜 암에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느라고,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너 좀 알아봐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져 힘이 부칠 때도 장일순은 청년, 학생들의 강의 요청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장일순은 경쟁사회의 폐해와 새로운 미래 사회가 인간들의 공생을 넘어 자연과 인간, 사회의 한살림, 더 큰 공생을 만들어 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자에 앓고 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동안 철없이 살아서 병이 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철없는 이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쑥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병환 중에도 장일순은 이현주 목사와 ‘노자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에 선종한 지학순 주교의 기념사업에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신

의 병이나 죽음보다는 문명과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참된 삶을 지키고 희망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장일순 노년

1994년 5월 22일 원주 봉산동 자택에서 부인과 세 아들이 임종하는 가운데 장일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장일순의 집과 그 맞은 편에 있는 동생 장화순의 집 사이에 있는 마당에 비닐을 깔고 급한 대로 전국에서 오는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장일순을 기

억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지식인, 정치인, 사업가에서부터 그와 일생을 같이한 동지들, 이름 모를 원주 시민들이 장일순의 장례를 함께 치루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봉산동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집전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추모사에서 장일순을 ‘물 같은 흙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중략)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낮은 곳을 택해 나아간 것들이
물줄기를 이루고 강이 되어 멀리까지 가듯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고 하셨다
낮은 곳에 누워
강물이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그리해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셨다
그는 흙 같은 분이셨다
풀도 꽃도 나무도 다 모여 살게 하는
그는 대지의 생을 사신 분이셨다
생이불유하여 풀 한 포기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으셨다
씨앗이 그곳에 자리 잡고 싶어 하고
나무들이 거기 와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다
지나가던 풀들이 던지는 말에 귀 기울이셨고
그들을 섬기고 모시고 살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생명이 그 대지에 푸르게 출렁였다
그는
순한 풀 같고
편안한 흙 같은 분이셨다

리영희 교수는 추도문 “민주와 통일의 꽃 끝내 못 보시고”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결하셨습니다. 병든 이 시대가 반기기에는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올곧은 삶을 일관하셨습니다. 악하고 추악한 것들은 목에 낀 가시처럼 선생님을 마다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선생님이 계신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29번지는 인권과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의에 몸 바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하나의 작은 성지였습니다. 진정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적막하여 숨소리를 내기조차 두려웠던 30여 년 동안, 선생님은 원주의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싸우는 전선에서 비틀거리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싸움의 방법을 모색하는 이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회의를 고백하는 이에게는 신앙과 신념을 주셨고, 방향을 잃는 이에게는 사상과 철학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공과 영예를 후배들에게 돌리시는 민중적 선각자이시고 지도자이셨습니다. 원주의 그 잡초가 무성한 집은 군부독재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지친 동지들이 찾아가는 오아시스였고, 선생님은 언제나 상처받은 가슴을 쓰다듬는 위로의 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한 시대를 변혁한 큰 업적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한 알의 작은 좁쌀’로 자처하며 사셨습니다. 원주시 봉산동의 그 누옥에서 오로지 먹과 벼루와 붓과 화선지를 벗 삼아 한낱 이름 없는 선비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참으로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장일순은 생전에 “내가 죽거든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일순의 서거 이후 한동안 별도의 공식적인 추모행사나 조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일순을 기억하는 이들은 매년 기일에 원주를 찾았고 또 수시로 원주를 찾아 장일순의 삶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장일순을 추억해온 원주 사람들은 2001년 장일순의 서거 7주기를 맞아 ‘무위당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 - 후에 이름이 ‘좁쌀 만인계’, ‘무위당 만인회’로 바뀌었습니다 - 을 가졌습니다. 2010년에는 ‘사단법인 무위당사람들’이라는 공식 법인을 창립했습니다. 법인 이름을 ‘무위당 기념사업회’, ‘선양회’가 아니라 ‘무위당사람들’로 한 것은 장일순의 유지에 따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일순의 삶을 배우고 각자가 무위당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일순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산 조봉암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도 울었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다수의 젊은 청년들과 애국인사들이 끌려가고 초를 당할 때도 울었고, 해월 선사의 추모비와 피체지 표지석을 세우면서 울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배나 제자들의 사연을 듣고 울었고, 힘이 없어 돕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울었고, 길을 가다 만난 마을 아낙네의 하소연에도 울었고, 달 밝은 원주천 독길을 걸으면서도 문득문득 울었습니다. 혼자서도 울었고, 곁에 사람이 있으면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고, 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울었고, 술 한 잔 걸치고 울었고, 저녁에 이인숙에게 낮에 있었던 얘기를 전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장일순이 청년시절에 세웠던 교육의 지표는 ‘참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일순의 한 생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는 평생 ‘참된 생명’을 찾았던 구도자였으며 참을 가르친 교육자였으며, 참을 실천했던 혁명가였으며, 참을 쓰고 그렸던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가끔 한 밤에 풀 숲에서 들려오는 벌레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萬象)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의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참고문헌

- 김삼웅(2019), 『장일순 평전』, 두레
장일순(2002),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한상봉(2024), 『장일순 평전』, 삼인

-
-
-
-
-

나오면서 - 미래에서 오신 손님

장일순은 한살림의 정신으로 겸손과 자애, 검박함을 꼽았습니다. “겸손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자, 알뜰함으로 세상의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자애 속에서 잘못된 사람조차 안식처를 찾도록 하자는 게 한살림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문류하(開門流下), 즉 문을 열고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몸과 마음을 낮게 기울일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원주 사람들은 장일순의 ‘낮게 기어라’라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존이니 공생이니 하는 좋은 말도, 훌륭한 철학도 결국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말풍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한살림의 좋은 뜻, 맑은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나아가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낳는 운동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공생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이 진짜 공생이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살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어울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지만 그런 노력만큼 한살림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한살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장일순의 생애를 따라 가다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감탄하게 됩니다. 유교, 기독교, 동학이 막힘없이 통하고 서구의 과학철학과 동양의 노장사상, 우리의 한 문화와 풍류사상, 민중들의 옛 지혜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이는 머리에 담긴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 한계가 있거니와 평생 감시와 탄압 속에서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보지 못한 장일순이었습니다.

다. 아마도 그것을 대체한 것은 치열한 사색과 좋은 벗들과의 대화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일순은 ‘박주일배하고 휘청대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걷는 방죽 길’이 자신의 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길에서 상처 나고 먼지 낀 들풀, 하늘의 달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염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짓밟힌 풀들이 말없는 자신의 위대한 스승님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상과 철학이 별세계의 것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네 삶의 이야기,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이겠지요. 남이 가진 은덩이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금덩이가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멀리서 찾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언제나 버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장일순은 지금 눈앞에 일보다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환란 속에서 미래의 평화와 ‘하나의 세계’를 위해 행동했고, 당장 자신의 입신출세를 보장하는 대학 졸업장보다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었습니다. 수재를 당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집을 지어주는 일보다 협동하는 힘과 지혜, 조직을 주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수확량이 줄어들더라도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미래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고 알렸습니다. 모두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찬양할 때 농업과 농촌이 미래 생명의 근거지가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사상과 공생 협동운동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 모두가 각자도생의 경쟁으로 치달을 때 그러다 다 죽는다면 양팔을 펴서 막아섰고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한살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오신 손님처럼 말입니다.

장일순의 말과 짧은 글이 책으로 묶여 나온 것은 그가 서거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김종철 선생이 이끌던 녹색평론사에서 펴낸 『나락 한 알 속의 우주』(1997)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살림 조합원 모임과 연수회, 농민단체,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그가 몇 차례 했던 강연, 그리고 신문 잡지에 실린 장일순과의 대담 기사들을 모은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입니다. 이 책의 발문(跋文)을 쓴 이현주 목사는 “장일순 선생 문집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당신이 몸소 쓰신 글은 담배씨 만 톨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분의 말씀을 녹취했다가 베낀 것들 아니면 대담을 옮겨놓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목사가 “침묵이 백이면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벌써 오십은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글로 나타나면 십이나 겨우 남을까요?”라고 한 말처럼, 183쪽 분량의 이 책은 장일순의 침묵의 의미를 절반 정도는 건져 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고마운 글입니다.

김종철 선생이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를 묶기 전에는 장일순이 병상에 있을 때 이현주 목사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 장일순과 담론한 내용을 정리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다산 글방, 1993)가 있습니다. 장일순과 이현주 목사는 도덕경 81장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노자의 지혜 속에 담긴 우주와 자연의 무위(無爲)적 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본성에 반하는 인간과 사회 문명의 이기적 욕심을 비판하고 모두가 함께 공생(共生)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책은 시중에 많습지만 이 책의 독보적인 의미는 노자의 말씀을 빌려 우리 시대의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궁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노자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맑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두 책이 나온 후 후학들이 쓴 장일순에 관한 회고, 그의 시화 등을 정리한 몇 권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개 2000년 이후의 일들입니다. 2008년경에 전라도 광주에서 무위당 서화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일순이 남긴 서화 작품들을 모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후 ‘무위당 만인회’와 원주의 뜻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에 흩어진 장일순의 서화 작품 1,125점을 발굴, 수집하여 「무위당 서화자료집」시리즈(1~8권)를 펴낸 일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무위당 장일순에 대한 관심이 차츰 일어나면서 관련한 학술논문들도 2010년대 이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술논문 중에는 장일순의 사상, 철학에 관한 주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 생태정치, 사회운동, 예술 등의 순으로 논문 주제가 많습니다.

근년에 장일순에 관한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두 권의 ‘평전’⁷⁾이 출판된 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장일순에 관한 기억과 말들이 땅속으로, 허공으로 사라지기 전에 잘 붙잡아 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급선무일 것

7) 김삼웅이 지은 『장일순 평전 - 무위당의 아름다운 삶』(두레, 2019)과 한상봉이 지은 『장일순 평전 - 걸어 다니는 동학, 장일순의 삶과 사상』(삼인, 2024).

입니다. 또 장일순과 함께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종합해 장일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가 살았던 사회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장일순의 사상과 실천을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장일순이 갖는 현재적 의미도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